

Cover Story

국립현대무용단 '내가 물에서 본 것'

COLUMN 시나위

여기. 예술 태양과 바다

Vol. **404**
AUGUST 2025 **8**





2025

D.FESTA

소극장축제

in 부산



2025.8.15.(금)-24.(일)

공간소극장, 나다소극장, 하늘바람소극장



BSO 제57회 정기연주회
57th BSO Subscription Concert

Busan
Symphony
Orchestra
SINCE 1983

오충근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 파이프 오르간 인 빈야드 -

PROGRAM

하순봉

Soon-Bong Ha

생상스

C. Saint-Saëns

교향곡 제1번 '釜山' *부산심포니 위촉 세계초연(2025)

Symphony No.1 'Busan' * World Premiere, commissioned by BSO

교향곡 제3번 c단조 작품78 '오르간'

Symphony No.3 in c minor, Op.78 'Organ'

예술감독
오충근



오르간
신동일



작곡
하순봉

일시 2025.9.2 Tue. 7:30pm

장소 부산콘서트홀

주최 (사)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후원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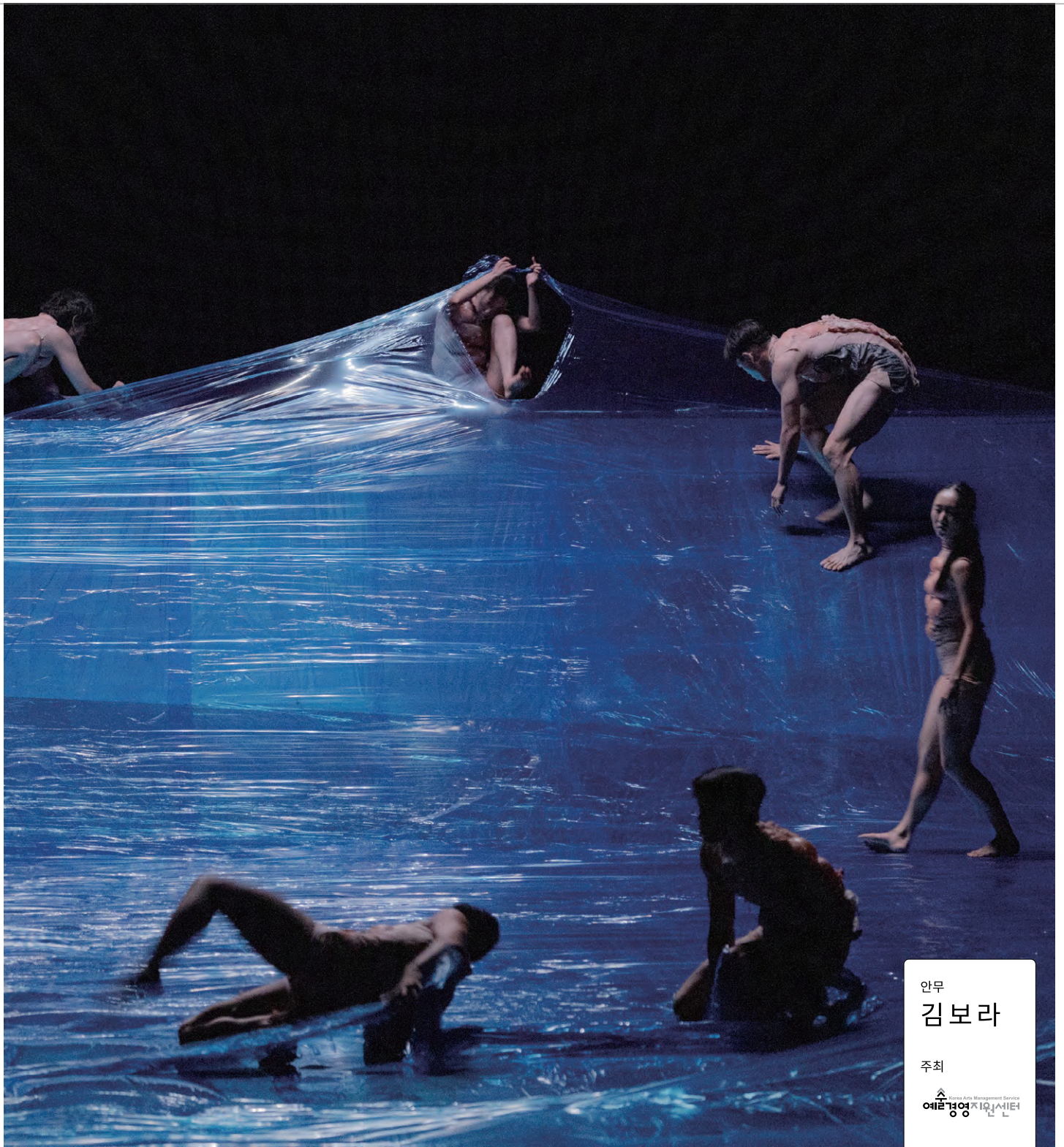
특별후원 SHINSEGAE 동성 모터스 송일타워 BNK 부산은행 (주)부산대학교 (주)와인테크놀로지 본시원 안과 남산정 요양병원 B&C PVD COAT(주) 마에스트로 오충근 후원회

입장권 VIP석 7만원 / R석 5만원 / S석 3만원 / A석 2만원 (S·A석 학생 30% 할인)

예매처 부산콘서트홀 NOL Interpark YES24

문의 051-621-4577 www.bso21.com

* 본 공연은 2025년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5. 8. 30. 토

2:00 PM

내가 물에서 본 것
What I Sense in
the Matter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안무

김보라

주최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예술경영지원센터

주관

국립현대무용단
Korea National Contemporary Dance Company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파멸의 빌미는 무엇인가



악의 탄생을 지켜보라

경남도립극단 교류공연

빌미

작·연출 최원석

천영훈 박진수 윤재진 윤하진 김규도 이은주 박예선

2025.8.23.토 1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티켓 R석 30,000원 S석 20,000원 (14세 이상 관람가) 예매 및 문의 www.bscc.or.kr 051-607-6000

부산시향과 함께 걷다, 세계 클래식 음악 산책



지휘 및 해설 홍석원



협연 색소폰 브랜튼 최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2025. 8. 28.(목) 19:30 / 8. 29.(금)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AUGUST 2025

VOL. **404**

발행인 차재근

편집인 남영희

고객지원팀장 남양욱

편집위원 김성필, 박소윤, 박진홍, 박창희, 이정호, 최찬열

편집장 이아라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일 2025년 7월 25일

디자인·제작 효민디앤피

- 08 Column
시나위
- 10 반갑습니다
장문호 부산문화회관 제4대 후원회장
- 12 여기, 예술
태양과 바다
- 14 Cultural Issue
음악으로 만나는, 광복 80주년
- 16 무대 뒤 사람들
영상감독 홍석진
- 18 현대미술산책
보는 미술을 넘어, 마르셀 뒤샹
- 24 Cover Story
국립현대무용단 <내가 물에서 본 것>
- 28 Preview
- 36 Review
- 38 Program Guide
- 48 객석에서
- 49 New Book
- 50 BSCC News
- 52 2025 공연프로그램 안내

시나위

부조화 속에서 피어나는 상호작용

글 이정호 국악작곡가,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교수

세상은 늘 예측할 수 없는 흐름으로 흘러간다. 계획한대로 풀릴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전혀 다른 길로 빠지고, 단단히 조율된 것 같은 삶도 금세 엇박자에 휘말린다. 그러나 그 혼돈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그 안에서야 비로소 새로운 가능성이 움트기도 하기 때문이다. 질서와 무질서가 맞닿는 경계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다듬고 서로를 이해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세상의 모습을 닮은 음악이 있다. ‘시나위’라는 우리 전통음악이다.

시나위는 무속음악에 뿌리를 둔 즉흥 기악합주곡인데, 대금, 피리, 해금, 아쟁, 가야금, 거문고 등의 악기가 장구와 징 같은 타악기의 일정한 장단(박자) 안에서 즉흥적으로 자유롭게 연주하는 음악이다. 피리는 피리대로, 해금은 해금대로, 거문고는 거문고대로 제 목소리를 내는 이 음악은 처음엔 다소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 악기들이 서로 다른 길을 가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심히 귀를 기울이면 그 안에 일정한 결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시나위’를 두고 ‘부조화 속의 조화’, ‘혼돈 속의 질서’라고 일컫는 이유이기도 하다.

각 악기가 자기만의 길을 가면서도 서로를 끊임없이 감지한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숨결, 눈빛 없이도 느껴지는 의도, 누군가 속도를 높이면 다른 이도 따라가고, 한 악기가 강하게 밀어붙이면 다른 악기는 그 배경이 되어준다. 이렇듯 시나위는 소통 없는 합주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서로의 기척을 듣고 반응하는 섬세한 감각이 숨어 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다. 각기 다른 배경, 가치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부딪히고, 어긋나고, 때로는 서로를 놓친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서로를 감지하며 살아간다. 타인의 기척을 무시할 수 없고, 완전히 혼자서도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불완전한 상태로 끊임없이 서로에게 맞춰가며 조율하고 또 조율한다. 시나위처럼 각자의 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타인의 소리를 수용하는 연습. 그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삶의 자세일 것이다.

시나위는 부조화가 모여 조화가 되는 음악이다. 하지만 그것은 각자 멋대로 가는 무작위가 아니다. 연주자들은 정해진 규칙 없이도 흐름을 읽고, 순간을 감각하며, 전체적인 방향을 함께 만들어간다. 이 ‘느슨한 질서’는 오히려 강



박적인 완벽함보다 더 유연하고 생명력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 또한 그와 같아야 한다. 누군가를 억누르는 통제가 아닌 자율성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공동체. 그것이야말로 시나위가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다.

종종 삶이 엇박을 낼 때 우리는 불안감을 느낀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많이 초조해하고, 타인과의 차이를 감당하지 못해 단절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시나위는 말한다. 어긋남은 실패가 아니라고.

시나위의 묘미는 완벽한 동일성이나 타이밍보다도 의외의 순간에 어긋나는 그 긴장과 여백에서 피어난다. 어긋났기에 들리는 새로운 소리, 불협이기에 가능한 감정의 진폭. 그 모든 요소들이 시나위를 더욱 인간적인 음악으로 만든다.

삶 또한 그렇다. 완벽하게 흘러가는 인생은 없다. 실수하고, 돌아서고, 때론 전혀 의도치 않았던 길을 걷는다. 하지만 그런 어긋남 속에서 우리는 뜻밖의 배움과 만남을 얻는다. 실패는 새로운 관계를 낳고, 낯선 길은 오히려 진짜 나를 만나게 해준다. 시나위가 그러하듯 우리의 인생도 그 불완전함 속에서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시나위는 보여주고 있다. 방향이 없고 악보가 없어도 괜찮음을,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서로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임을, 완벽하지 않은 존재들이 서로의 호흡을 감지하며 함께 나아갈 때 비로소 진짜 음악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것은 음악의 원리를 넘어 사람 살아가는 사이에서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모두가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으며, 그것은 오랫동안 존재해왔던 함께 만들어 가는 우리 삶의 방식이다.

시나위는 거창한 슬로건이나 완벽한 해답이 아니라 그저 다른 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마음 그리고 불완전함 속에서도 선율을 이어가려는 의지를 말하고 있다. 그것이 결국 미래의 희망이 될 것이다. 지금 이 거대한 시나위 속에서,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조금 어긋나 있어도 괜찮다. 서로의 숨을 느끼고 흐름을 읽으며 이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으며, 그것이 결국 시나위처럼 우리도 뜻밖의 조화와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는 길인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도 놓치지 말고 귀 기울이자.

당신의 소리를, 나의 소리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다음 선율을.

“ 보람과 명예가 따르는 일, 부산문화의 나무를 키웁니다. ”

장문호 부산문화회관
제4대 후원회장 인터뷰

글 박창희 경성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보람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의 후원회를 소개하는 문구다. 보람과 명예는 문화예술 창조의 동기이자 이유가 된다. 이는 문화 후원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다. 문화예술인에게 자부심을 불어넣고 시민들에겐 자긍심을 안겨주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면 그 곳의 문화는 꽃이 핀다.

“그렇죠. 보람과 명예를 안겨주기에 후원하고 지원도 하는 거죠. 문화예술은 사실 후원을 먹고 자라는 나무와 같아요. 나무가 커가는 것을 보면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되고 그게 곧 행복이 아닐까 싶어요.”

장문호(73) (주)천영스틸 대표이사는 자신이 문화 후원자로 나선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지난 7월 초 제4대 부산문화회관 후원회 회장을 맡았다. 평소 문화에 관심이 있어



음악에 심취했는데, 8여 년 전, 부산문화회관 후원회 창립때 이사로 참여한 것이 인연이 되어 줄곧 스폰서(sponsor), 서포터(supporter)로 활동하고 있다. 창립이사로 출발한 그는 자문위원, 부회장, 수석부회장도 맡았다. 그러니까 문화회관 후원회의 산역사인 셈이다.

후원회장을 수락한 뒤엔 ‘무엇부터 해야 할지’ 고민이 커졌다고 털어놓았다.

“후원의 숭고한 의미를 살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문화회관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문제죠. 재정적 지원 못지않게 후원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0여 명이 참가하고 있지만 서로를 잘 몰라요. 서로를 알고 친해지면 신입 회원 영입 등 후원회가 활성화될 것으로 봐요.”

문화회관 후원회는 그동안 매년 1억여 원의 후원금을 모아 찾아가는 예술버스 운영, 대극장의 대형 모니터 설치, 대극장 로비 개선사업 등을 지원했다. 알게 모르게 활동하면서 문화회관의 든든한 언덕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문화회관도 후원자들을 위해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예술의 초대’ 소식지 발송, 대극장 좌석 네이밍 등 일정 예우를 하고 있다.

신임 장 후원회장은 부산고와 중앙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전후 부친의 회사를 물려받아 지금까지 (주)천영스틸과 맥스틸을 운영해오고 있다. 강서구 녹산산단에 본사를 둔 (주)천영스틸과 맥스틸은 철강관련 기업으로, 각각 연매출 500억 원, 100억 원씩 올리는 중소기업이다.

장 회장은 그 자신이 음악광이기도 하다. 오래전부터 색소폰을 불어온 그는 2010년께 ‘필로스 색소폰 오케스트라’(동호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필로스 오케스트라는 바리톤, 테너, 알토, 소프라

노 색소폰 등 파트별 연주자 3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클래식과 재즈나 팝을 연주한다. 장 회장은 소프라노 색소폰을 불어왔는데, 최근에는 호흡이 가빠져 테너 색소폰을 잡기도 한다.

“색소폰 오케스트라는 하모니가 부드러우면서 웅장해요. 연주를 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 빠져들죠. 나이에 관계없이 음악에 몰입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귀한 경험이지요. 이 나이까지 색소폰을 못 놓는 이유입니다.”

장 회장은 20여 년 전부터 ‘가나문화포럼’도 운영하고 있다. 분야별 명망 있는 전문가를 강사로 초청해 다양한 강연을 듣는 문화예술포럼이다. 포럼은 1년에 두 번 3개월 단위로 열리며 매년 40여 명이 참여한다. 장 회장은 “경영인들에게도 예술적 감각이 필요하다”면서 “부산 발전을 선도하는 여러 분야의 리더들이 ‘예술’을 공통분모로 배움을 같이 한다는 것은 소중한 인연이자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활동에도 관심이 많아 젊을 때는 JC, 로터리클럽에서 활동했고, 얼마 전까지 부산고법 조정위원회 회장을 맡았다. 골프 실력도 수준급으로 알려져 있다. 하고 보니, 장 회장은 기업가, 음악인, 문화후원자, 스포츠인으로서 못하는 게 없는 팔방미인이었다.

“최근 부산콘서트홀이 개관하고 곧 북향엔 오페라 하우스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부산의 문화관이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문화예술인들이 더욱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예술후원 시스템도 달라져야 하겠지요.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나이보다 더 젊어 보인다는 말에 호탕하게 웃은 장 회장은 인터뷰를 마치기가 무섭게 문화회관 로비에서 열리는 후원자를 위한 로비음악회 행사장으로 표표히 발걸음을 옮겼다.

태양과 바다

- 베니스, 부산 -

글 박소윤 (재)부산문화재단 정책기획센터장

여름은 길고 뜨거워졌다. 사람들은 해변으로 달려간다. 이 일상적 해변의 풍경을 전시공간(리투아니아관)으로 이동시킨 작품이 있다. 2019년 베니스 비엔날레에 출품된 <Sun & Sea(Marina)>가 그것이다.

오페라, 시각예술,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이 작품은 인공 해변으로 조성한 무대에서, 여름 바다를 즐기는 사람들을 그려내고 있다. 약 24명의 등장인물은 선댄을 하거나 스낵을 먹고 책을 읽는 등 평범한 일상을 연기하지만, 그들이 부르는 노래의 내용은 심각하다. 바다의 산성화, 산호의 멸종, 계절의 붕괴, 3D 프린팅으로 복제되는 생명 등 현실의 기후 재난이 가사 속에서 출렁인다.

루길레 바르즈주카이테(Rugilė Barzdžiukaitė), 리나 라펠리테(Lina Lapelytė), 바이바 그라이니테(Vaiva Grainytė)가 협업한 이 작품은 관객이 무대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독특한 배치를 갖는다. 브레히트의 ‘낯설게 보기(Verfremdungseffekt)’ 기법을 차용한 것으로 익숙한 풍경을 다른 위치에서 조감하게 함으로써, 관객으로 하여금 무대와 자신 사이의 거리를 인식하게 하고, 이로써 무대 위의 몰입이 아닌 사유와 각성이 일어나도록 한 것이다.

총 24장¹⁾ 중 14장 「사이렌의 아리아 II」는 인간 중심의 정복적 세계관을 비판한다.

“모든 동물계에는 저마다의 특별한 특권이 있고, 모든 것이 지혜롭게 설계되어 있죠. 하지만 인간은 자기 것이 아닌 걸 정복하고 지배하려고 하죠...”라고 노래하며, 산성



Sun & Sea(Marina)

파도, 상아빛 거품과 관광객과 무기, 통조림을 실은 배를 통해 환경 파괴, 소비와 전쟁이 얹힌 현대 문명을 은유한다. 노래의 대사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파괴적 현실을 동시에 담으며, 반복을 통해 마치 파도처럼 감정의 울렁임을 주고 있다.

18장 「불평의 노래 II」는 계절의 붕괴를 통해 기후 이상을 노래한다. “모든 게 뒤죽박죽이예요, 5월 초에 서리랑 눈이 왔고 겨울엔 새싹이랑 버섯이 났어요…… 12월 말인데, 말이 되나요? 할머니가 늘 그러셨죠, 세상 끝이니까!”라는 가사는 기후의 비정상성이 일상성이 되고만 불편한 진실을 드러낸다.

22장 「3D 자매의 노래」에서는 멸종한 생명과 가족, 음식까지 3D로 복제하려는 유토피아적 환상을 통해, 상실을 기술로 치환하려는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을 보여준다. “단 하나의 버튼만 누르면 이 세상을 다시 만들 수 있

1) 대본 출처: Sun & Sea (Marina) Libretto (English translation), Rugilė Barzdžiukaitė, Vaiva Grainytė, Lina Lapelytė, published via sunandsea.lt

어요. 엄마, 당신이 필요할 땐 당신도 출력할게요. 언니도, 그리울 땐 출력할게요.”라는 반복은 기술의 허구적 낙관주의에 대한 예술적 경고처럼 울린다.

일상의 이야기와 기후 위기 메시지의 교차는 생태 환경에 대한 개개인의 단절된 인식을 유비시키며, 이에 대한 ‘일상화된 무감각’을 일깨운다.

이 작품은 2019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이후 세계 각국에서 공연되었다. 그리고 2025년 6월, 서울 성수동 탬버린스 팝업 공간에서도 선보여졌다. 도시의 상업 공간에 생태적 사유를 불러오는 이 연출은 기후 위기에 대한 예술 행동을 우리 삶의 장소로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담론의 장에서도 지금의 생태 환경 위기는 근대의 인간과 자연의 구분,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 점유가 초래한 것이라고 보면서,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의 전환 및 재설정을 강조하고 있다. 제임스 러브록(James Lovelock)은 가이아 이론(Gaia Theory)을 통해 지구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고 있다. 즉, 대기, 해양, 지질, 생물이 상호작용 하는 지구적 자기 조절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으므로 지구 전체의 조화와 공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브뤼노 라투르(Bruno Latour)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 Actor-Network Theory)을 통해 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인간뿐 아니라 비인간 행위자들도 포함된다고 했다. 그는 저서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착륙하는 방법』에서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 전체가 연결된 존재인 지구적 존재(Terrestrial)라는 개념을 통해 지구, 기후, 종, 생태계 역시 정치적 주체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작품 <Sun & Sea(Marina)>는 이러한 담론을 무대라는 감각의 현장으로 치환시키며, 지구 위기의 본질을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의 불안정한 공존’으로 시각화한 것이기도 했다. 즉 인간이 아닌 존재들—산호, 파도, 거품, 버섯, 벌—의 목소리를 사람의 입을 통해 대신 울려 퍼지게 만들었으니까.

부산에서도 기후 위기를 예술의 언어로 표출하는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실험실 C는 <1제곱미터의 우주II>(사하구 다대포 물운대, 2022), <잔 것들의 연결망>(사하구 맥도생태공원, 2023)을 통해 생태 예술을 펼쳤으며, 오봇한 세프는 <미래의 식탁: 기대어 깃든 프로젝트>(영도, 2022)라는 요리 퍼포먼스를 통해 자연과 인간 삶의 관계를 재구성했고, 예코 액션포레스트는 기후를 주제로 한 공간문화예술교육 <소행성 42PX +5H>(동구 좌천초등학교, 2021)를 펼친 바 있다.

부산문화재단도 2021년부터 매년 비치코밍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이 해변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이 프로그램은 예술-환경-시민 참여가 교차하는 실천적 예술 행동이다. 2021년 이기대, 영도, 송정 2022년 일광, 간절곶, 거제도 2023년 가덕도, 2024년 대마도를 거쳐 2025년에는 광안리와 다대포로 이어진다. 이 흐름은 곧 부산형 <Sun & Sea(Marina)>로, 기후정의의 지평에서 지역 예술이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보여준다.

기후 위기는 이제 먼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삶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그 안에서 예술은 단지 경고를 넘어서, 새로운 감각과 관계의 지형을 모색하는 실천이어야 한다. 베니스와 부산의 ‘태양과 바다’는 말한다. 일상의 해변이 종말의 무대가 될 수 있음을. 반대로, 그 무대 위에서 우리가 함께 다른 이야기를 써 나갈 수도 있음을.



부산문화재단 2024 비치코밍 프로젝트

음악으로 만나는, 광복 80주년

글 송현민 음악평론가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식민의 시간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해방은 단번에 도래한 완결된 사건이 아니라, 긴 시간에 걸쳐 천천히 이루어진 과정이었다. 그 과정에는 수많은 이름 없는 이들의 삶과 투쟁, 그리고 공동체의 기억이 존재한다. 그런 점에서 광복의 순간은 역사책의 한쪽을 벗어나 동시대 언어로 재해석되고, 예술의 형식을 빌려 다시 살아나고 있다.

8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 공연들이 부산 곳곳에서 펼쳐진다. 국악, 클래식 음악, 합창 등 여러 장르를 넘어 다채로운 기획으로 펼쳐지는 공연들은 단순한 '기념'을 넘어, 오늘의 우리에게 '해방'이라는 말이 여전히 유효한 가치임을 새삼 환기시킨다. 더불어 부산은 1945년 해방 이후에도 현대사의 여러 격랑을 견뎌온 도시이다. 피란수도이자 임시수도라는 이름, 한국전쟁 당시의 피난민 수용, 그리고 전쟁 이후의 재건까지. 이 도시의 곳곳에는 광복 이후 한국 사회가 겪은 압축적 변화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부산은 해방 이후의 한국사를 품은 도시이자,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들이 펼쳐지기에 상징적인 장소라 할 수 있겠다.

국악관현악단이 기념하는 광복의 순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8월 14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특별연주회 <광복의 빛을 넘어>를 선보인다.

국악관현악단은 가야금, 대금 등 국악기를 중심으로 편성된 오케스트라로, 한국 고유의 전통음악뿐 아니라 창작곡, 영화음악 등 다양한 곡을 연주하며, 한국적인 소리를 현대적으로 즐기도록 하는 악단이다. 더불어 오늘의 정서를 담은 창작국악들을 선보이기도 하는데, 이번 공연에서

도 해방의 의미와 기쁨을 담은 여러 작품을 발표한다.

이동훈 예술감독이 지휘를 맡은 이번 공연은 '하나의 노래, 애국가'(작곡 손다혜)로 시작해, 살풀이춤과 남도창이 국악관현악단과 어우러져 조국 광복을 위해 목숨 바친 혼령들의 마음을 어루만진다. 다채롭게 구성된 이번 공연은 문인선의 낭송과, 소프라노 박예은과 소리꾼 박성희의 목소리가 어우러진 노래도 만날 수 있다. 더불어 '기억의 노래, 자유의 함성' 코너에서는 BS부산오페라단의 5중창과 국악관현악단이 독립군가와 광복군 행진곡 등을 선보인다. <광복의 빛을 넘어>는 애국가부터 독립군가까지 조국을 위해 태어난 음악과 노래를 국악의 숨결과 함께 만나 볼 수 있는 시간이다.

부산 출신 여성 독립군의 삶이 국악 칸타타로

오늘날 '광복'이라는 말은 너무 익숙해져 추상적인 기념어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한 사람의 생애, 고통, 용기, 선택을 통해 보면 '해방'이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역사의 이야기를 넘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되기도 한다. 오늘날 공연예술은 그런 인물을 무대 위로 소환해, 관객에게 구체적 감정과 역사적 공감을 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광복을 기념하는 여러 순간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역사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 청년, 지역 인물 등을 조명함으로써 기억의 편향을 바로잡고, 해방의 주체가 특정한 누군가만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시도도 다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부산 출신의 여성 독립운동가 박차정(1910~1944)을 주인공으로 한 국악 칸타타 <흙-들풀처럼, 불꽃처럼>은 기존의 남성 중심의 이야기에서 벗어나 우리가 몰랐던 역사 속의 다락방을 열어준다.

국립부산국악원이 준비한 이 공연은 8월 15일과 16일 부산콘서트홀에 오른다. 국립부산국악원 국악연주단의 기악단과 성악단원들은 물론 클래식부산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함께 하여 국악기가 빚어내는 음악과 낭독·합창으로 박차정의 이야기와 감정을 풀어낸다.

1920년대 부산, 문학소녀였던 박차정은 부조리한 현실과 아버지의 죽음을 겪으며 여성해방과 독립을 위해 나서기

로 결심한다. 전국의 여학생들과 함께 만세운동을 이끌며 거기로 나선 그녀는 결국 배후자로 지목되어 붙잡히고 서대문경찰서에서 모진 고문을 당한다. 간신히 중국에서 탈출한 박차정은 의열단장 김원봉을 만나 사랑을 키워나가고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세워 독립운동의 기반을 다지기도 한다.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박차정은 조선의용대 부녀복무단을 이끌고 전장으로 향한다.

무대에서 재현되는 박차정의 목소리는 과거의 회상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 던지는 뜨거운 질문과도 같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라는 물음. 광복절에 오르는 <홀-들풀처럼, 불꽃처럼>의 또 다른 매력은 ‘국악’으로 만나는 역사의 한 페이지이자, 부산의 새로운 음악공간으로 자리 잡은 부산콘서트홀에 오르는 ‘첫 번째 국악 공연’이라는 점이다.

부산으로 모인 아리랑

광복에 대한 기억과 기념은 광복절이 있는 8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특히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는 역사적 감회의 순간을 한 해 동안 여러 국가 행사로 이어나가고 있는데, 음악공연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부산시립합창단이 9월 18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선보이는 정기연주회 <송 오브 아리랑(Song of Arirang)>도 광복의 의미를 ‘8월’을 넘어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다. 부산시립합창단을 비롯해 광주시립합창단, 대구시립합창단, 해운대소년소녀합창단 등 여러 합창단이 부산으로 모이는 이번 공연은 그 제목처럼 여러 ‘아리랑’을 합창으로 만나볼 수 있다.

아리랑은 단순한 민요가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한국인의 집단 정서를 담은 노래이다. “아리랑 고개를 넘는다”라는 아리랑의 한 구절은 고난을 견디며 나아가는 삶의 비유였고, 일제 강점기에는 민족의 슬픔과 억압을 견디는 노래이자, 노래를 통한 저항의 수단이었고, 연대의 언어이기도 했다. 간도, 하얼빈, 미주 지역의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도 아리랑은 불렀고, 해방을 기다리는 사람 간의 암호이자 약속으로 자리 잡았다. 특정 작곡가가 작곡한 작품이 아니라, 집단적인 구술 전통을 통해 구성되고 전승된 민요이기도 했기에, 한국인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떤 아

리랑이 만들어지고 불려졌다. 그런 점에서 6부로 구성된 <송 오브 아리랑>에서 눈에 띄는 것은 5부 ‘못다 부른 아리랑’이다. 일제강점기에 세계 각지로 흩어진 한인들이 불렀던 아리랑들을 합창곡으로 편곡해 부르는 무대로, ‘못다 부른 아리랑’이라는 제목처럼, 타향살이의 설움을 안고 살았던 한국인들의 고통과 망향의 정서를 담은 아리랑으로 광복의 의미를 되새겨보게 하는 중요한 순간이다.

잃어버린 ‘말’을 되찾고 ‘노래’에 담으며

창작공연 <되찾은 빛, 광복>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부산시 일원에서 펼쳐진다. 뮤지컬·연극 배우, 무용수, 음악가 등 전문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참여형 공연으로, 광복을 둘러싼 역사적 기억과 지역 정체성을 예술로 풀어내는 무대다. 특히 특정 공연장에 오르는 공연이 아니라, 남포동과 부산근대역사관 등 역사적 공간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일명 ‘장소특정형 공연’으로 부산 시민과 예술가들이 공동체로서의 기억을 함께 구성하고 체험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광복’은 한자 그대로 빛을 되찾는다는 뜻이다. 이는 단순히 밝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잃어버린 시간의 끝에서 빛이 돌아오는 과정이다. 그것은 곧, 말을 되찾는 일이기도 하다.

빠앗긴 말, 금지된 언어, 억눌린 이름들이 다시 입술로 돌아오는 순간이었다. 그래서 광복을 기념하는 8월에, 악기들로 구성된 기악 위주의 공연보다 노래와 합창이 중심이 되는 공연이 많은 것이다. 잃어버린 언어를 복원하고, 숨죽였던 목소리를 다시 불려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광복은 빛의 복원이라기보다, 감춰졌던 진실과 감정, 이름을 다시 비추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민족’과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다시 묻고 이야기하며 공동체가 잃어버린 기억을 다시 떠올려보게 된다.

이럴 때 음악은 순간을 되살리고, 노래는 역사와 인물을 우리 곁에 불러온다. 그런 점에서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음악공연들은 역사를 노래하고, 해방의 의미를 새롭게 묻는다. 특히 8월의 부산에서 펼쳐지는 무대들은 이 도시가 지닌 역사성과 겹쳐지며 더 깊은 공감과 울림을 전할 것이다.



무대와 영상의 경계를 허물다

영상감독 홍석진

글 박나무 자유기고가



과학기술은 상상 못할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전기나 수소만 먹은 자동차가 운전자 없이도 고속도로를 달리고, 사람이 미처 들어가지 못한 재난 현장에 로봇이 대신 들어가기도 한다. 세상을 떠나간 옛 가수가 생생한 목소리로

새 노래를 불러주는가 하면, 전직 대통령이 그리움이란 이름으로 다가와 대중을 만나선 눈물을 쏟 빼놓기도 한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익명의 비서관이 묻는 말에 척척 대답을 해주는 걸 넘어서, 주인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본성은

할아버지의 할머니쯤 된 것만 같다. 십 년 후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해서 그야말로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디지털과 인공지능의 홍수 속에서 공연예술은 아직은 독야청청 아날로그와 인간지능을 고집하는가 싶기도 하다. 어쩌면 인공지능에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 마지막 영역으로 인간이 창작한 예술을 손꼽자니, ‘적과의 동침’은 최대한 늦출수록 좋은 것일까? 무대의 막을 사람이 직접 뒤에 숨어 열던 시절은 너무 옛날일까? 기계동력의 힘을 빌려 무대를 열고, 막 사이에 거대한 배경과 무대장치를 바꿔내는 것은 아날로그가 보여줄 최대치의 퍼포먼스일까?

극장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이유는 현장감에 있다고 하겠다. 현장에서 보는 장면, 그 자리에서 듣는 소리, 그 곳에서만 느끼는 감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그 감동을 돕기 위해 최근에는 영상장비가 동원되기도 한다. 원어로 공연되는 오페라를 잘 이해하기 위해 자막이 사용되기도 하고, 멀리서도 배우나 연주자의 몸짓과 표정을 잘 읽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촬영한 모습이 대형스크린으로 중계되기도 한다. 무대를 둘러싼 객석이 있고, 내가 앉은 자리가 무대 뒤편이라면 앞모습을 챙겨볼 수도 있을 것이고, 앞쪽이라면 뒷모습을 볼 수도 있겠다. 연극이나 오페라, 뮤지컬의 장면을 여러 대의 카메라로 잘 촬영해 극장이나 안방에서 관람할 수도 있겠다. 공연의 순항을 위해 협업하는 수준으로는 이미 충분히 손을 잡고 있는 셈이다. 다른 영역으로만 여겨지던 영상과 공연예술이 이미 한살림을 차리기 시작했고 그 사이에서 새로운 융합의 영역이 탄생하고 있다. 이미 그 준비를 일찌감치 마치고 호시탐탐 여러 무대를 노리는 이가 있으니 홍석진 영상감독이다.

홍 감독의 실험은 무용과 함께 시작됐다. 무용수가 무대에서 공연을 펼치는데, 것처럼 무용을 하는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계속 나온다. 실제 무대에 오른 무용수가 아니라 영상으로 주인공과 함께 무대에 올라있다. 따로 추는 듯 하나 연결되어 있고, 누가 실제 무용수이고 영상 속의 무용수인지는 화면이 익숙해지면 알 수 있다. 무대에 맞게 화면을 구성하고 무용수의 실제 신장에 맞추었으니

그럴 법도 하다. 이러한 시도가 벌써 10년도 전에 <쿵바카>와 <Two one room>으로 실현되었다. 홍석진의 실험은 함께 하는 것에 있다. 무용뿐만 아니라 음악과 그림, 그리고 지켜보는 관객까지 함께 만들어가는 무대에 관심이 높다. 그렇게 만든 것이 2016년의 멀티미디어 퍼포먼스 <Dialogue : 바이트의 궤적>이다.

“저는 일련의 작업들을 ‘다원예술작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영역의 예술과 만나는 것이 저는 재밌고 보람 있습니다. 원래는 영화를 찍는 사람이었는데, 쉽지 않은 일이었고, 제가 잘하는 일이 다른 일과 만났을 때 어떻게 변형되고 압축되고 치환되는지 궁금하고, 그 질문을 계속 해나가는 중입니다. 주로 무용이라는 순수예술과 작업해 왔는데, 다양한 장르와 만나고 싶고, 또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대는 영상으로 인하여 더욱 다변화할 것이고,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설 것입니다. 막을 닫고 그 뒤에서 열심히 무대세트를 바꿔내는 일도 영상으로 대체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관객과 배우는 자연스럽게 다른 장면에 들어있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를 오가며 허무는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무궁무진합니다.” 홍석진의 계속되는 실험이 공연예술을 어떻게 변모시킬지 궁금하다.

홍 감독의 진가는 아직 발휘되지 않은 것 같다. 어쩌면 너무 앞서간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의 작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사라진 도시를 기록하는 작업부터, 무대에서 낯선 작업과 만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중에 또 새로운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과학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홍 감독을 비롯한 수많은 신진세력들이 그 기술의 은총을 공연예술에 나눠주기를 기대한다. 영상이 무대를 점령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일어나가며 성장하는 평화로운 장면을 보고 싶다. 아직은 보여주지 못한 게 많고 적용되지 않은 영역이 부지기수다. 세계적인 추세에 비해, 또 수도권의 여러 공연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것에 비춰보면 부산지역은 아직 걸음마 단계인 듯하다. 이미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는 홍석진의 실험에 기대는 바가 큰 이유이기도 하다.

보는 미술을 넘어, 마르셀 뒤샹

글 박송화 미학연구자, <새롭게 읽는 서양미술사> 저자



마르셀 뒤샹, 〈샘〉, 1917/1964, 38.1×48.9×62.55cm, 혼합매체(세라믹, 유약, 페인트) © Artists Rights Society (ARS), New York/ADAGP, Paris/Estate of Marcel Duchamp

시대, 지역, 개인마다 예술의 정의는 달라져 왔다. 정의가 달라지면서 예술이 아니었던 것이 예술이 되기도 하고, 특정 시대에 위대한 작가로 평가받던 인물이 후대에는 잊히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볼 수 있다. 특히나 20세기 현대미술의 전개 과정은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예술의 확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데, 그 중심에는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 1887~1968)이 있다. 뒤샹 이후 현대미술은 시각적 만족을 넘어 관람자와 정신적 게임을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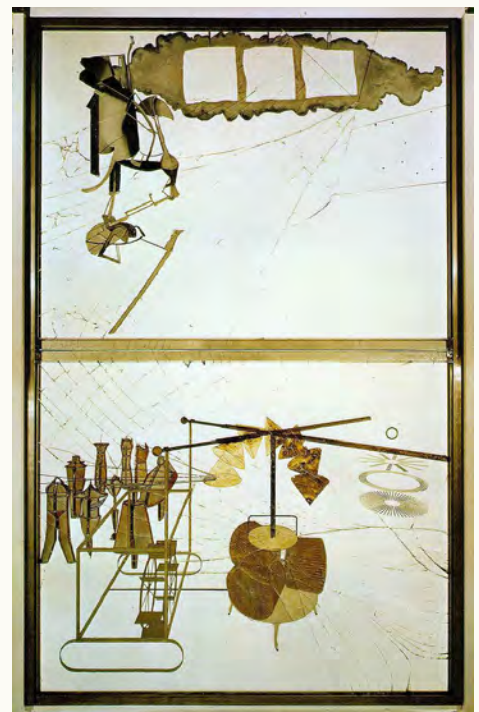
1910년대 뒤샹은 당대 발전하는 기계에 관심을 가지고,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2>(1912), <신부>(1912) 등에서와 같이 입체주의를 응용하여 기계와 생물이 결합한, 기계문명 시대의 생명을 표현했다. 연이어 과학에 근거한 절대성에 대한 믿음을 흔드는 <세 가지 표준 정지 장치>(1913~1914)를 선보였다. 뒤샹은 1미터 높이에서 1미터 길이의 실을 바닥에 떨어뜨려 고정하였고, 그 모양을 본떠 세 개의 자(ruler)를 만들었다. 이것은 ‘미터’라는 표준이 실제 현실에서는 우연에 의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면서 절대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균열을 낸다. 또한 이 작품은 예술과 삶에 작용하는 우연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1916년 다다이스트들이 모여 ‘우연’을 예술적으로 실험하기 전의 일이었다.

1913년 뒤샹이 회화를 벗어나 다양한 실험을 강행하던 시기, 일명 ‘큰 유리’라고 불리는 <자신의 독신자들에 의해 발가벗겨진 신부, 조차도>(1915~1923)를 구상하는 데 집중했다. 모호함으로 가득 찬 이 작품은 기계와 생물, 수학적 원근법과 논리의 해체 등 이중적인 성질이 피비우스의 띠를 만들며 뻗어간다. 두 개의 상하 유리 패널로 이루어진 ‘큰 유리’는 아래쪽에는 원근법에 근거하여 회전하는 분쇄기와 그 옆에 기계 위로 아홉 개의 주물이 매달려있다. 상단 유리에는 <신부>(1912)에서 나왔던 기계와 유기 생물이 뒤섞인 사물이 하늘 위로 올라가고 있으며 그 위로는 구름, 은하수 같은 비정형의 형상이 펼쳐져 있다. 두 개의 패널은 지상과 천상, 남성과 여성, 지성과 감성, 유한(정형)과 무한(비정형) 등 이원적이면서도 상생적인 관계를 보여주며, 보이는 것 너머, 상상의 세계로 관람자를 이끈다. 작품은 오랜 시간 방치되어 먼지가 내려앉기도 하고, 운반 도중 유리에 금이 갔지만 뒤샹은 이것 또한 우연의 작용이자 과정으로 받아들였다.

이처럼 뒤샹은 ‘미술’은 시각 중심적이라는 상식을 깨고,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활용하여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관람자의 상상을 자극하는 것이라 여겼다. 뒤샹이 볼 때, 현대의 미술은 너무나도 ‘시각’에만 호소했다. 19세기 이후, ‘순수 예술’이 등장하면서 예술과 사회는 분리되었고 미술은 선과 색을 통해 아름다움을 창출하는 매체로 축소되었다.



마르셀 뒤샹, <세 가지 표준 정지 장치>, 1913~1914/1964, 혼합매체(실, 유리, 나무 등) © Succession Marcel Duchamp/ADAGP, Paris and DACS, London 2025



마르셀 뒤샹, <자신의 독신자들에 의해 발가벗겨진 신부, 조차도>, 1915~1923, 277.5×175.9cm, 혼합매체(유리, 납선, 금속, 유화, 실 등) 필라델피아 미술관, 필라델피아

하지만 예술이란 원래 장르의 구분도 없었으며, 종교, 철학, 윤리 등 사회 여러 분야와 한데 묶여 다양한 목적과 기능을 수행했다. 뒤샹은 시각이라는 단일 감각으로 좁혀진 미술에 반기를 들며 예술을 통해 상식을 넘어서기를 원했다. 그는 자신의 예술을 ‘반-망막적(anti-retinal)’이라 명명하며 시각 중심적 미

술에서 탈피하여 시각, 정신, (성적) 욕망이 한데 뒤섞인 세계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이며 인간의 시선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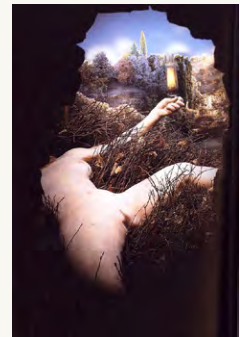
대중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뒤샹의 반망막적, 즉 반예술적 행위는 1917년 뉴욕의 독립미술가협회전에 <샘(Fountain)>을 전시한 사건이다. 그전에 1913년, 뒤샹은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2>를 미국에 선보이며 구대륙에서 온 가장 현대적인 예술가로 환영받았다. 하지만 뒤샹이 가명으로 출품한 <샘> 앞에서는 모두가 말을 잃었다. 그것은 흔하게 볼 수 있는, 남성 소변기를 눕혀놓았을 뿐이었다. 작가의 흔적이라곤 변기 제조사명을 따서 'R. MUTT 1917'이라고 빼돌빼돌하게 쓴 서명밖에 없었다. 결국 <샘>은 전시되지 않았다. 엄격한 제도권 전시에 대항하여 '자유'를 내세운 독립미술가협회전은 심사위원도, 상도 없고, 참가비 6달러만 내면 누구나 작품을 전시할 수 있었지만, 뒤샹의 작품은 결국 사라졌다.

협회 위원이기도 했던 뒤샹은 '리처드 머트'라는 가명으로 사설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사설에서 그는 손으로 직접 작품을 제작했는지보다는 사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상적 물건에 새로운 '관점'과 '명칭'을 부여하는 것, 즉 새로운 개념을 창조하는 것이 예술임을 주장했다. 즉 예술과 예술작품은 사용된 재료(물감, 캔버스 등), 장인적 기술, 작가의 예술혼과 특출난 천재성 등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개념을 창조하는 것이다. 뒤샹은 변기를 선택했고 그것을 전시장에 놔둠으로 인해 변기의 도구적 성질을 제거하고,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했다. 그러자 변기는 가부좌를 튼 부처, 성모 마리아의 새하얀 베일, 샘물이 솟구치는 형상 등 다양한 상상을 불러일으키며 단순 도구가 아닌, 순수 사물로서의 오브제(objet)가 되었다. 뒤샹은 논리적, 합리적 사고에 바탕을 둔 가능성이 아닌, 고정된 상(像)을 넘어서는 잠재성이 실현되는 장(場)이 예술임을 <샘>을 통해 보여준다.

나아가 뒤샹은 스스로 변신을 거듭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고정관념을 해체했다. 그는 1920년대부터 예술 활동을 줄이더니 돌연 프로 체스 선수가 되기도 했고, (에)로즈 셀라비(Rose Sélavy, 프랑스어로 '에로스, 그것이 삶이다(Eros, c'est la vie)'로 발음된다.)라는 이름의 여성 자아로

등장해 여성 분장을 하고 사진을 남기기도 했다. 나아가 광학 기계의 일종인 회전판을 만들어 발명박람회에 출품하기도 했는데, 한 달 동안 단 한 점만 판매되었다. 이처럼 뒤샹은 삶을 재료로 하여 스스로 변신을 거듭하면서 예술과 예술가에 대한 상식에 의문을 던졌다. 경계를 뛰어넘는 뒤샹의 활동과 변신은 이후 퍼포먼스 아트와 개념미술이라는 이름으로 후대 예술가들에 의해 무수히 행해졌다.

뒤샹은 사후까지 예상을 벗어난 계획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1946년부터 1966년까지 20년에 걸쳐 비밀리에 제작된 <에땅 도네(Etant donnees, 주어진 것)>가 바로 그것이다. 뒤샹이 사망한 다음 해인 1969년, 이 작품이 미술관에 설치되었다. 뒤샹은 지시 사항을 상세하게 남겨 작품이 자신의 머릿속에서 구현한 것과 똑같이 설치되도록 하였다.



마르셀 뒤샹, <에땅 도네(주어진 것)>, 1946~1966, 혼합매체, 필라델피아 미술관, 필라델피아

작품은 나무문의 작은 두 구멍으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한 번에 한 사람만 작품을 볼 수 있으며, 두 개의 구멍으로 내부를 본들 관람자는 결코 전체를 조망할 수 없게 설계되었다. 이는 보여지기 위해 전시된 기존의 전시 방식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기도 했다. 구멍으로 두 눈을 가져다 대면 흐릿하게 초점이 맞춰지면서 숲과 폭포를 배경으로 다리를 벌린 나체의 여성이 보이고, 그녀가 들고 있는 가스등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다. 순간 으스스한 분위기가 감돌며 관람자는 자신이 보는 광경이 어떠한 장면인지, 구멍 너머는 2차원인지 3차원인지도 헷갈리며 '주어진 것'의 한계가 생겨나는 자리에 무수한 상상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경험한다.

이렇듯 인간의 시각은 관습, 상상, 욕망이 뒤얹혀 있는 복잡한 체계라는 것을 뒤샹은 작품을 통해 일괄되게 주장했다. 20세기 이후 미술이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대상을 만드는 것이라는 상식을 벗어나 보다 논쟁적이고, 다채로워지는 과정에서 뒤샹의 역할을 간과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INVITATION TO THE

가

가람아트홀	621-6669
가온아트홀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61~2

대

동래문화회관	550-6611
대동대학교 D'ART홀	510-4838, 010-9429-7014
드림씨어터	1833-3755

무

무지크바움	070-7692-0747
-------	---------------

부

부산가톨릭센터 공간101.1	462-1870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605-511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	309-40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부산콘서트홀	640-8888

성

성원아트홀	1899-5435
소극장 6번출구	010-5232-1350
소민아트센터	991-22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1644-2963

수아트홀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움	557-3369

영

액터소극장	611-6616
어댑터씨어터	0507-1388-1447
에저또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차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아트홀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해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B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BOF아트홀	0507-1330-3001

K

KBS부산홀	620-7181
--------	----------

S

SM아트홀	1600-1602
-------	-----------

ARTS

SUN

MON

TUE

WE

3

4

5

6

10

11

12

13

17

18

19

20

24

25

26

27

뮤지컬 <독립군 아리랑> 15:00
5만원-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CC, CC, CC. (담담하게 당당하게 단단하게)
17:00
전석 3만원/댄스프로젝트 엣(010-3591-0861)

유나이티드 코리안 청소년 오케스트라 제28회
정기연주회 17:00
UKO(010-4544-4966)

31
뮤지컬 <사랑의 하츠평> - 부산 11:00, 14:00, 16:30
7만원-6만원/(주)창라이프(1566-6551)
기억해야 할 미래 [그날의 함성, 영웅] 17:00
전석 무료/(사)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644-5211)

제17회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The
Classic - 아시아의 창(窓) 부산" 19:30
전석 무료(인터넷 신청)/KNN(850-9568)
한국창작합창21 제18회 작곡 발표회 "음악의
길로 나아가다'25" 19:30
초대/한국창작합창21(010-2969-5747)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실내악 시리즈
III 『졸인 II』 19:30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경성(京城)오페라단 초청 일 트로바토레 갈라
콘서트 19:30
전석 5만원/부산문화(1600-1803)

제4회 더하모니아스앙상블 정기연주회 19:30
전석 무료/더하모니아스앙상블
(0507-1307-8941)

2025 제14회 작곡동인 세움 정기연주회 음악극
<수궁가> 19:30
전석 1만원/W엔터테인먼트(010-7600-4514)

제41회 KBS부산 무용콩
대 KBS부산(620-7324)
그랜드 칸타타 "자유의 함
이름들" 19:30
5만원-3만원-2만원(학생
연합회협동조합(0507-
이현수 귀국 독주회 19:30
전석 1만원/이현수(010-

센토챔버소사이어티 제14
'Artists in Busan, Ser
전석 2만원(학생 1만원
(442-1941)

더 뉴 앙상블 제9회 정기연
전석 2만원/더뉴앙상블

ED	THU	FRI	SAT
		1	2
	7	8	9
쿠르 (본선) 성 ! 불꽃으로 남은 병 5천원)/부산오페라 -1330-3001) 0 0-3880-5917)	14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광복80주년 기념음악회 “광복의 빛을 넘어” 19:30  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부산작곡가협회 제54회 창작곡 발표회 실내악과 솔로, 가곡창작을 위한 새로운 약속 19:30  초대/부산작곡가협회(010-7600-4514)	15 동백유랑단의 월드프로젝트 <피리, 세계날다> 17:00  초대/J아트브릿지(010-6295-8552)	16
4회 정기연주회 ies1’ 19:30)/아트뱅크코레아	21 박정은 귀국 비올라 독주회 19:30  초대/박정은(010-3058-8640)	22 전문예술단체 한울림합창단 45회 정기연주회 19:30  한울림합창단(010-9044-7576) 베이스 이희광 독창회 ‘추억’ 19:30  전석 2만원/아트락(010-5468-4658)	23 MelON 디즈니+ 지브리 오케스트라 콘서트 17:00  대 10만원·8만원·6만원·4만원/아이프로덕션 (010-9184-7496)  경남도립극단 교류공연 연극 <빌미> 15:00  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연주회 19:30 (070-8095-9426)	28  부산시향과 함께 걷다, 세계 클래식 음악 산책 - <프랑스> 19:3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9  부산시향과 함께 걷다, 세계 클래식 음악 산책 - 마티네 <프랑스>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30 뮤지컬 <사랑의 하츨링> - 부산 11:00, 14:00, 16:30  대 7만원·6만원/(주)창라이프(1566-6551)

SUN

MON

TUE

WE

전시실

수석전시회

· 7월 29일(화)~8월 3일(토)
전시실 1, 2
부산광역시 수석연합회 010-3868-2686

부산시문화상수상자회

· 8월 19일~8월 23일(토)
전시실 1
부산시 문화상 수상자회 051-803-3311

3

4

5

6

10

11

12

13

17

광복 80주년,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음악회 15:00

☎ 사상구(051-310-4066)

18

19

20

24

안차도; 그 섬의 아이들 16:00

☎ 전석 4만원/극단 우릿(010-6606-0782)

25

26

27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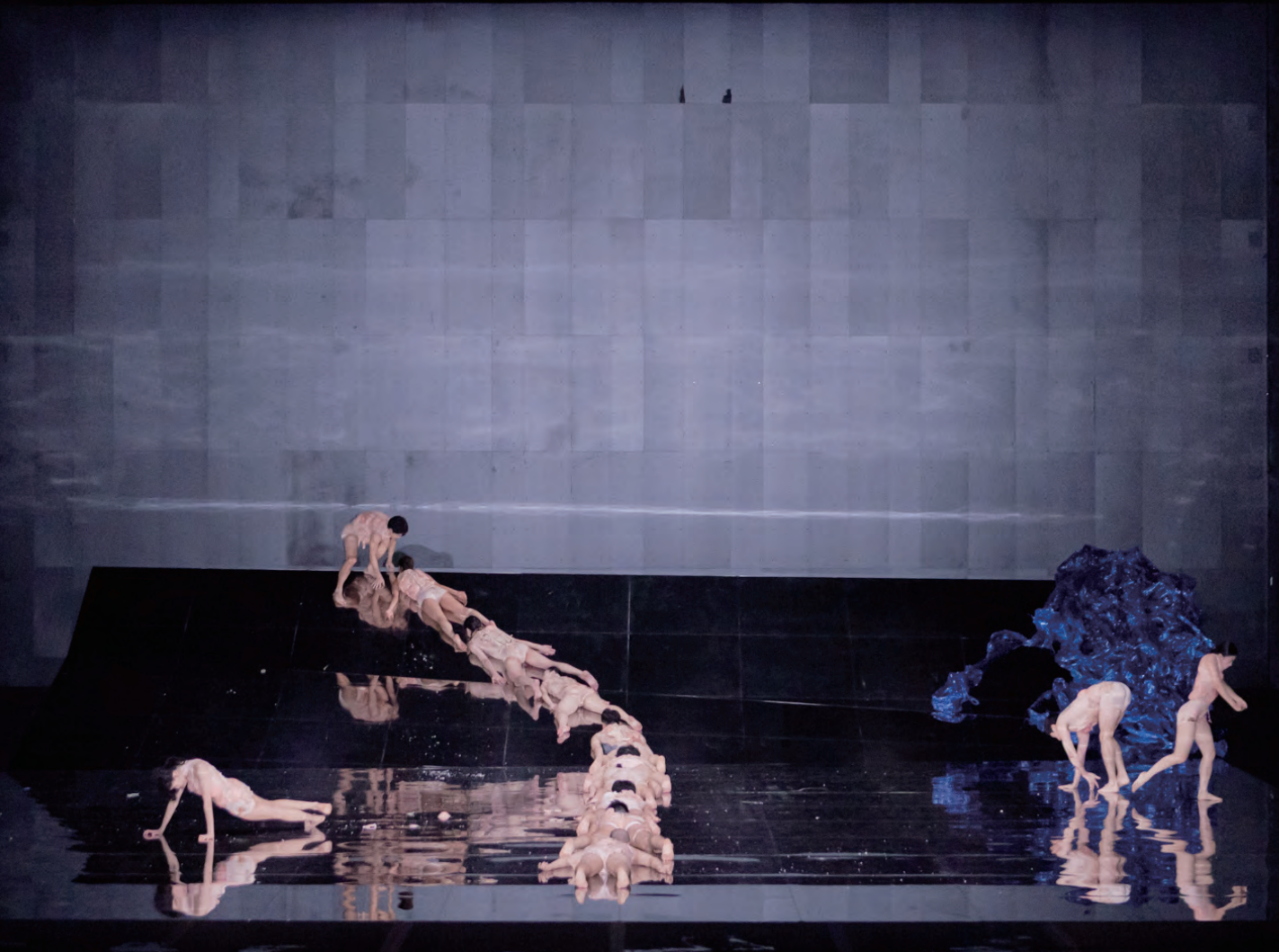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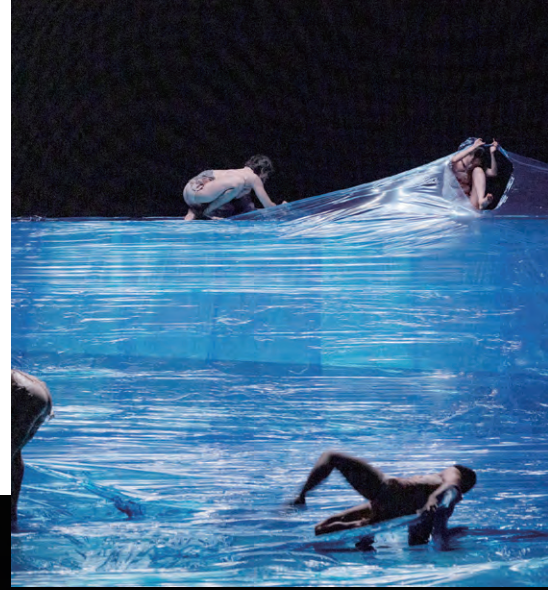
제13회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극장공연
'소통왕 말자할매' 15:00, 18:00

☎ BICF(051-916-8828)

ED	THU	FRI	SAT
		1	2
	7	8	9
14		15	16
2025년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 14:00 ☎ 부산광역시(051-888-1532)	광복절 행사 10:00 ☎ 부산광역시(051-888-1854)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클래식음악 콘서트 <꾸러기음악회 - 신나는 여름> 15:00 ☎ R석 55,000원/교문(02-547-9851)	
21	22	23	
		안차도; 그 섬의 아이들 16:00 ☎ 전석 4만원/극단 우릿(010-6606-0782)	
28	29	30	
		국립현대무용단<내가 물에서 본 것> 14:00 ☎ R석 6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제13회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극장공연 '만담어셈블' 15:00, 18:00 ☎ BICF(051-916-8828)	

국립현대무용단

〈내가 물에서 본 것〉





지역 협력으로 만나는 동시대 무용

국립현대무용단의 <내가 물에서 본 것>이 오는 8월 30일(토) 오후 2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부산 관객들과 만난다. 이번 공연은 2025년 ‘국립예술단체 지역 전막 공연 사업’의 일환으로 (재)부산문화회관과 국립현대무용단이 협력해 선보이는 무대로,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세종, 안동 등 주요 도시를 순회한다. 특히 이번 부산 공연은 국립현대무용단이 2024년부터 추진해온 ‘코레오 커넥션’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서 유치된 작품으로, 지역 기반 안무가의 창작 역량을 발굴하고 현대무용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다.

기술과 몸의 관계를 탐구하다

<내가 물에서 본 것>은 안무가 김보라의 자전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보조생식 기술을 중심으로 기술과 신체의 관계를 탐색한다. 특히 안무가는 직접 난임 시술을 수차례 경험한 바 있으며, 그 과정에서 느낀 감각적·정서적 변화들을 동시대 무용의 언어로 재구성하고자 했다. 작품은 단지 의료기술의 성공과 실패라는 결과 중심의 서사를 따르지 않고, 기술과 신체가 접촉하며 발생하는 복잡한 감각과 긴장, 흔들림, 잔여의 감정들을 섬세하게 무대 위에 펼쳐 보인다.

침묵 속 ‘몸’을 호출하는 움직임

2022년 기준, 한국의 신생아 10명 중 1명이 시험관 시술을 통해 태어났을 만큼 보조생식기술은 더 이상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몸’은 늘 조용히 침묵하거나, 기능적인 대상으로만 다뤄진다. 김보라 안무가는 이러한 침묵 속 몸의 경험을 되짚으며, 난임 시술 과정에서 교차되는 감각과 기억, 그리고 그것이 몸에 새긴 감정의 파편들을 움직임의 언어로 풀어낸다. 이를 통해 <내가 물에서 본 것>은 여성의 몸, 기술, 사회적 기호 사이의 얽힘을 드러내는 동시에, 감각의 정치성과 신체성의 의미를 되묻는다.

기술과 신체의 경계를 흔들다

<내가 물에서 본 것>은 단순한 고백이나 서사적 설명이 아닌, 기술과 신체가 만들어낸 미세한 비틀림과 감각적 진동을 무대로 옮긴 작품이다. 인간/비인간 요소들이 얽혀 구성된 보조생식기술의 장면들을 통해, 몸이 단지 치료의 대상이나 재생산의 수단이 아닌, 감각적이고 사유하는 존재임을 일깨운다. 공연을 통해 관객은 기술과 접촉한 자신의 몸을 다시 돌아보고, 감각의 층위에서 흔들렸던 경험들을 새롭게 인식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일시 8월 30일 토요일 오후 2:00

장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금액 R석 6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문의 부산시민회관 607-6000

몸이 감각하는 기술의 시간

<내가 물에서 본 것>

글 윤민화 드라마투르그

작년 LG아트센터 서울에서의 초연에서 그 어떤 공연보다도 문제적이고, 논쟁적이었던 작품 <내가 물에서 본 것>이 올여름 부산에 온다. 이 작품은 김보라 안무가 자신이 수차례 난임 시술을 받은 경험에서 끌어올린 “몸”에 관한 무용이자, 신체 담론이다. 한국 사회에서 열 명 중 한 아기는 인공적인 시술 과정을 통해 태어날 정도로 이제 난임 시술은 흔한 일이 되었다. 하지만 놀라운 정도로 의료 행위가 벌어지는 접면-여성의 몸-에 대해서는 이야기되지 않는다.

“한 번에 성공하고 졸업합니다.”, “당신도 엄마가 될 수 있습니다.”, “마흔의 나이가 되어 엄마가 되다.” 난임병원의 광고 문구들은 말한다. 이 문장들에서 ‘몸’은 조용하다. 단지 결과로 수렴되거나, 성공이라는 표면 위에 놓혀진다. 이에 <내가 물에서 본 것>은 난임 시술을 받은 여성의 몸을 감각적 인식틀로 삼아, 그것을 기반으로 한 움직임들로 무대를 구성하고자 기획되었다. 시술의 성공과 실패 이전의 몸의 시간, 잊힌 감각, 그리고 의료기술과 접촉했던 몸의 자리를 되짚는다. 의학 도구들과 물질

적으로 관계 맺은 몸으로부터 끌어올린 감각의 언어는 관객들에게 생경하고 낯선 60분을 선사하게 될 것이다.

취약한 몸의 움직임을 안무로

평생 몸을 재료로 예술 활동을 해온 안무가에게 자신의 몸이란,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절실한 자기 자신 그 자체였을 것이다. 자발적으로 난임 병원을 찾았음에도, 그 과정에서 부정적으로 반복된 몸의 경험은 안무가의 몸에 교차되고 누적되었다. 김보라 안무가는 말했다. “각종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내 몸은 마치 물에 젖은 솜뎃어리처럼, 결코 살아 있다고 볼 수 없을 만큼 무겁고, 습하며, 거대하게 커져 버린다.” 만약, 시술이 성공한다면 이 고통들은 감내해야 했던 과정이 되지만, 실패하게 되면 의학적 과정에 종속된 수동적인 몸에 남겨진 트라우마로 남는다.

이런 종류의 트라우마는 몸의 것이다. 추상적이거나 사변적이지 않으며, 그 어떤 이름을 붙일 수도, 개념으로 명명하기도 어려운 그야말로 몸의 일인 것이다. 이러한 몸의 취약성으로부터 출발한 움직임들을 고안했을 때, 그것은 결코 편안할 리 없다. 어쩌면 당신은 공연을 보며 과거 자신의 어떤 트라우마를 겹쳐볼 수도 있고, 그래서 참을 수 없이 불편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안다. 누구나 이러한 신체적 취약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비록 이 작품이 특수하고 구체적인 난임 시술의 경험에서 출발했지만, 그 취약성과 정동은 특정한 개인의 이야기로 환원되지 않는다. 그녀가 시술 과정을 수차례 통과하며 느낀 찌르는 느낌, 무기력함, 한껏 긴장한 어깨,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몸의 낯선 감각 등은 우리 모두의 몸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보편적인 감각들이다.



© 김보라 안무가, 윤민화 사진

무대 위의 몸들이 진동하고 교란할 때, 그 취약성은 관객 개개인이 품고 있는 기억의 파편들과 공명할 것이다. 이 공연이 말하고자 하는 신체성은 단지 은유나 상징이 아니라, 하나의 구체적인 조건이자 감각의 기입점으로 작동한다.

물, 물질, 물의, 물의를 빚다

이 공연의 표제 <내가 물에서 본 것>에서 “물”은 영어로 “matter”로 표기한다. 그 이유는 이 공연이 말하고자 하는 몸의 물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영단어 “matter”를 잘 살펴보면 꽤 흥미롭다. 이 단어에는 “(고려하거나 처리해야 할) 문제[일/사안]”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구성하는 일반적인) 물질”이라는 뜻도 있다. 의미적 층위와 물질적 층위 모두를 가로지르는 단어가 바로 “matter”인 것이다. 게다가 동사로 이 단어를 쓰면 우리말 “물의를 빚다”, “물의를 일으키다”와 유사하게 쓰인다. 난임 시술 과정 전체를 관통하며 “몸”은 지속적으로 무언가와 만나 물의를 일으켰다. 그것은 이름, 나이, 체중, 주민등록번호, 결혼 유무 등과 같은 기호적인 지점들이기도 하고, 펌프, 산소호흡기, 탐침, 약물, 주사 등과 같이 물질적인 것들이기도 했다. 몸이 시술 과정 전반에서 관계 맺어온 사안(matter)들은 때론 기호적으로, 때론 물질적으로 물의를 빚었다(mattering).

어떤 일이 중요하다는 의미(담론)와 세상을 구성하는 물질이라는 의미(물질)를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표현하는 것은 이 공연의 기획에서 중요한 지점이다. 왜냐하면, 의학 기술과 몸이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감각의 갈등과 잔여, 그것이 남기는 파문은 의미와 물질로 나뉘지 않고 항상 함께 붙어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난임 병원이 평온하게 제시하는 문구들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누락된 몸의 감각들을 호출하고, 움직임으로서 그것들을 호명할 때 흘러넘치는 감각의 잔여가 진동하는 이 무대 위에서, 몸과 기술은 명확히 분리되지 않고 맞닿아 흔들린다. 이때 감각은 단지 매개가 아니라, 그 흔들림을 기록하고 되살리는 작동 원리이기도 하다.

몸-기술-감각의 얽힘

<내가 물에서 본 것>은 기술과 신체가 만나 생기는 미세한 비틀림, 예기치 않은 감각, 반복되는 실패, 삭제된 통증 같은 잔여들을 무대 위로 호출한다. 이때, 김보라 안무가 고유의 안무법인 “테일 무브먼트(tail movement)”는 몸이라는 고유한 감각의 구조가 어떻게 기술과 사회적 언어에 교란되었는지, 그리고 그 교란이 어떻게 움직임으로 재구성될 수 있는지를 섬세하게 그려내는 방법으로서 작동한다. 테일 무브먼트는 몸의 중심(core), 중간(middle), 말단(edge)이라는 세 층위를 감각의 흐름에 따라 구획하며, 특정 부위에서 감각이 어떻게 먼저 도달하거나, 어디서 리듬이 생성되는지를 추적해가는 안무적 사유이다. 이처럼 감각의 선후와 밀도를 구성하는 구조는 단순한 동작의 조합이 아니라, 감각의 시간과 정치성 자체를 구성하는 장치가 된다.

여기에 더하여 장재호 사운드 디자이너는 우리가 흔히 소음이라고 간주했던 배경의 소리들을 전경으로 가지고 오는 방식으로 이 공연의 감각적 얽힘에 힘을 보탤다. 진료실 복도에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 초음파 탐침기나 MRI 기계의 저음, 호흡과 진동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알아차리기 힘든 배경음이다. 하지만 이 소리들이 비선형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방식으로 이 공간에 퍼지면서 무대 위의 무용수들의 몸이 예기치 않게 반응하고, 그 반응이 다시 움직임으로 전이되는 피드백 이펙트를 낳는다.

결국 이 공연은 난임 시술의 경험을 재현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거친 몸과 관계 맺은 다양한 물질들을 무대 위로 적극적으로 소환하고, 그 감각을 다시 느끼게 만드는 시도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작품은 감각을 통해 다시 구성된 몸-기술의 관계성이 무대 위에서 어떻게 진동하고, 움직임으로 전환되는지를 드러낸다.

관객은 묻게 된다. 내 몸은 그동안 기술과 어떤 방식으로 접촉해왔는가? 나는 어떤 감각을 잃었고, 어떤 감각은 지금도 내 안에 남아 있는가? 이 질문들은 공연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 관객의 몸 어딘가를 맴돌 것이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광복의 빛을 넘어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무대가 마련된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선보이는 이번 특별연주회는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와 숭고한 희생, 그리고 찬란한 희망을 국악의 깊은 울림으로 되새기는 자리다. 국악관현악, 소리, 무용, 낭송, 영상이 어우러지는 이번 무대는 단순한 음악회를 넘어, 예술을 통해 역사를 기리고 현재를 성찰하며 미래를 향한 다짐을 공유하는 감동의 시간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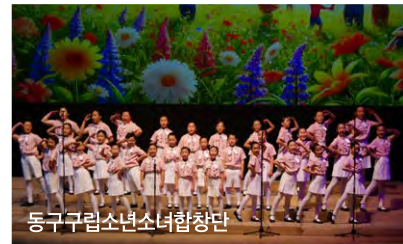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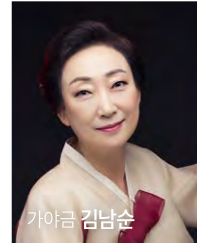
첫 곡인 손다혜 작곡의 ‘하나의 노래, 애국가’는 임시정부 애국가를 포함한 세 가지 애국가 선율을 하나로 엮어, 독립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음악의 힘과 그 의미를 되새긴다. 이어지는 ‘푸살’은 남도 무속음악의 대표적 선율을 기반으로 한 박범훈 작곡의 작품으로, 살풀이춤과 남도창이 어우러져 일제강점기 민초들의 고통과 애절한 정서를 예술적으로 풀어낸다. 김남순이 협연하는 가야금 협주곡 ‘우륵의 춤’은 고대 가야금의 선구자 우륵의 정신을 되살리는 듯한 역동적인 선율로, 전통의 힘과 생명력을 현대적으로 풀어낸다.

중반부의 편지 낭송 ‘진정한 영웅이여’와 이어지는 ‘임이여 오소서’는 광복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과 자유를 향한 염원을 절절하게 전한다. 서정적인 소프라노의 음성과 판소리 창자의 진한 호소력이 국악관현악과 어우러지며, 깊은 울림을 남긴다. 이 장면은 마치 일제강점기의 기다림과 해방의 감격을 응축한 한 편의 드라마처럼 전개된다.

후반부는 기억과 자유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전한다. ‘나 가거든’, ‘독립군가’, ‘광복군 행진곡’으로 구성된 세 곡은 각기 다른 시대와 스타일이지만, 국악관현악이라는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일관된 서사적 긴장과 감동을 이어간다. 성악 양상을 BS부산오페라단의 힘 있는 목소리는 희생과 투쟁, 승리의 감정을 고조시킨다.

마지막 무대는 ‘아리랑’으로 시작된다. 본조아리랑을 중심으로 한 전통 선율에 영상이 더해져, 일제강점기의 고난부터 오늘날 자주 독립국가로 나아온 여정이 생생하게 펼쳐진다. 이어지는 창작곡 ‘내 나라 내 겨레’는 동구구립소년소녀합창단과의 협연으로 감동을 배가시킨다. 웅장한 합창과 관현악의 조화는 통일을 염원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관객의 마음 깊은 곳에 민족적 긍지와 화합의 울림을 남긴다.

이번 공연은 단지 과거를 추억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광복의 의미를 현재의



시선으로 되새기고, 국악의 생명력과 감동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과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예술적 장이다. 각기 다른 예술 장르가 유기적으로 엮인 무대 위에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국악의 힘으로 역사를 노래하고, 민족의 이야기를 다시 써 내려간다. 관객들은 이 무대를 통해 우리 음악이 품은 진실한 감동과,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광복의 빛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될 것이다.



8월 14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광복 80주년 기념 뮤지컬 독립군 아리랑

선열들의 피를 담은 노래, 아리랑으로 되살아난 항일투쟁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가장 뜨거운 항일 무장투쟁의 현장을 무대 위에 재현하는 뮤지컬 <독립군 아리랑>이 부산을 찾는다. 이번 공연은 밀양아리랑예술단이 선보이는 대표 창작 뮤지컬로, ‘의백’이라 불린 독립운동가 약산 김원봉과 그의 동지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극은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갇힌 김원봉의 회상으로 시작된다. 그 속에서 함께 생사를 넘나들며 싸웠던 석정 윤세주, 박차정 등의 이름이 소환되고, 이들의 청춘은 다시 조국을 위한 항쟁의 불꽃으로 되살아난다. 밀양 3·13 만세운동, 중국 길림성 의열단 결성, 조선의용대 창설과 항일전투 등,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들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이 서사는 관객에게 단순한 감상이 아닌 ‘기억’의 책임을 일깨운다.

뮤지컬의 중심 인물인 김원봉은 백범 김구보다 더 많은 현상금이 걸렸을 정도로 일제가 두려워했던 인물이다. 의열단장, 조선의용대장,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부장 등으로 활동하며 무장 항쟁의 선봉에 섰다. 이 작품은 그의 삶을 ‘위인전’이 아닌 인간의 고뇌와 동지애를 품은 이야기로 담아내며, 무대 위에 선열들의 땀과 피, 젊은 날의 희생을 생생히 되살린다.

특히 강서성 곤륜산 전투에서 전사한 박차정 열사의 등장은 뮤지컬에 또 다른 감동의 결을 더한다. 민족주의 여성단체 근우회에서 활동하다가 투옥된 뒤, 오빠 박문호와 함께 중국으로 망명한 박차정은 조선여성의용대에서 활약하며 항일운동의 여성 주체로서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겼



다. 그녀의 삶과 사랑, 투쟁은 ‘밀양아리랑’ 선율 위에 얹혀 더욱 가슴 깊이 다가온다.

작품 속에서 흐르는 아리랑은 단순한 전통가요가 아니다. 억압과 고통 속에서 저항의 노래로 바뀐 ‘밀양아리랑’은 일제 군가로도 불렸던 곡이자, 독립운동가들에게는 조국을 되찾고자 하는 결의의 노래였다. 이 뮤지컬은 아리랑을 통해 민족의 혼을 드러내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지는 자유와 독립의 가치를 조명한다.

2017년 초연된 이후 아리랑 유네스코 등재기념 공연, 광복절 기념공연, 임시정부 100주년 공연 등으로 널리 알려진 <독립군 아리랑>은 단순히 과거를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억’의 윤리를 묻고, 미래를 향한 물음을 던지는 작품이다.

이번 공연은 밀양시 문화도시센터와 협력하여 지역대표공연예술단체로 선정된 밀양아리랑예술단이 선보이는 대표작으로, 밀양아리랑의 정서를 바탕으로 한 지역 공연 콘텐츠의 확장 가능성도 엿보인다.

광복의 참뜻을 되새기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들을 아리랑의 선율에 실어 부르는 이 무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이자 고백이 될 것이다.

8월 17일 일요일 오후 3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경남도립극단 교류공연

연극 <빌미>

파멸의 빌미, 악의 탄생

물음표처럼 휘어진 인간의 욕망, 진실과 거짓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파국의 블랙코미디가 무대 위를 파고든다. 2019년 공연 베스트 7, 제12회 대한민국 연극대상 수상작으로 주목받았던 연극 <빌미>가 경남도립극단의 교류공연으로 오는 8월 23일 토요일 부산문화회관 무대에 오른다.

연극 <빌미>는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어떤 방식으로 파멸의 씨앗이 되는지를 집요하게 추적한다. 내 가족, 내 이웃, 그리고 나 자신까지도 쉽게 괴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작품은 관객들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파멸의 빌미는 무엇인가? 악은 어디서 시작되는가?’라는 문구처럼, 이 작품은 단순한 가족 드라마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한 통렬한 풍자이자 자조이기도 하다.

이야기는 유학을 떠나는 딸의 송별 파티를 위해 펜션에 온 최교수 부부가 딸 승연의 약혼자 성필을 만나면서 시작된다. 그러나 평범해 보이던 만남은 곧 비극으로 치닫는다. 성필이 과거의 복수를 위해 접근했다고 판단한 최교수 부부는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하고, 이 과정에서 성필이 천식 발작으로 돌연 사망하게 된다. 최교수는 사망의 책임을 펜션 관리인의 아들, 하늘이에게 떠넘기며 사건은 건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향한다.

작품은 이렇듯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상황을 통해 인간의 이기심, 위선, 그리고 자기합리화가 어떻게 연쇄적으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고, 결국 모두를 괴물로 만들어버리는지를 보여준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과 책임, 그리고 이



를 감추려는 또 다른 거짓이 끊임없이 반복되며 인간의 민낯을 드러낸다. 연출을 맡은 최원석은 “거짓말을 계속하면 결국 패가망신한다는 지독히 윤리보편적인 이야기를 무대 위에서 펼치고 싶었다”고 말한다.

무대 위 두 가족의 욕망은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불편한 진실이 도사리고 있다. 블랙코미디의 형식을 빌려 통쾌하게 풀어낸 이 연극은 적절한 긴장감과 유쾌함, 날카로운 비판을 버무려 우리 사회의 민낯을 거울처럼 반사한다.

이번 공연을 준비한 경남도립예술단은 2020년 2월 창단 이후, 경남도민의 문화향유권 향상과 지역 문화예술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창작공연을 제작해왔다. 그중에서도 경남도립극단은 연극 <빌미>를 비롯해 사회적 이슈를 진지하게 다루는 작품들을 꾸준히 무대에 올려 주목받고 있다.

더운 여름의 열기를 시원하게 날려줄 블랙코미디 <빌미>는 단 하루, 단 한 번의 공연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파멸은 멀리 있지 않다. 누군가의 거짓말, 그리고 그 거짓을 외면하는 우리의 침묵이 바로 그 ‘빌미’가 된다. 이 무대에서 우리는 그 빌미의 순간을 정면으로 마주한다.

8월 23일 토요일 오후 3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산시향과 함께 걷다, 세계 클래식 음악 산책 <프랑스>

(재)부산문화회관이 선보이는 2025년 클래식 콘서트 시리즈 <부산시향과 함께 걷다, 세계 클래식 음악 산책>이 한층 더 풍성해진 무대로 관객을 찾아온다. 매 회차마다 세계 각국의 음악을 소개하며 클래식 여행을 이어가는 본 시리즈는 '프랑스'를 주제로 한 네 번째 무대를 8월 28일(목)과 29일(금), 낮과 저녁 두 회차에 걸쳐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선보인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홍석원의 깊이 있는 해설을 곁들여, 클래식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들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무대로 마련된다.

이번 공연에서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곡가들의 다채로운 작품들이 무대에 오른다.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는 죽음이 한밤중에 바이올린을 켜며 망자의 춤을 이끈다는 기발한 상상에서 출발한 곡으로, 강렬한 리듬과 몽환적인 선율이 인상적이다. 포레의 '파반느'는 우아하면서도 애수 어린 선율이 돋보이는 관현악곡으로, 프랑스 특유의 섬세하고 감성적인 색채를 전한다. 라벨의 '어미 거위' 모음곡은 동화에서 영감을 받은 다섯 개의 짧은 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름다운 오케스트레이션과 서정적인 분위기로 관객을 음악 동화 속으로 이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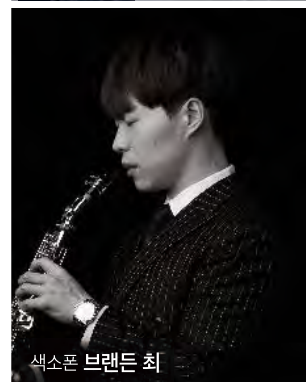
이베르의 '실내 소협주곡(Concertino da camera)'은 색소폰을 위한 대표적인 레퍼토리 중 하나로, 재즈적인 감성과 현대적인 리듬감이 조화를 이루는 작품이다. 이 곡에서는 세계 무대를 무대로 활약 중인 색소포니스트 브랜든 최가 협연자로 나선다. 섬세한 테크닉과 깊이 있는 음악성을 겸비한 그는 클래식 색소폰의 새로운 지평을 연 연주자로, 특유의 풍부한 표현력으로 곡에 생동감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브랜든 최와 부산시립교향악단이 함께 선사할 이번 무대는, 프랑스 클래식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브랜든 최는 프랑스 리옹 국립 음악원 최고 연주자과정과 미국 신시내티 음대 박사과정을 최연소로 졸업하고, 수많은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클래식 색소폰의 새로운 지평을 연 연주자다. 그는 또한 클래식 색소폰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음반 발매와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도 힘쓰고 있다. 현재 인터내셔널 색소폰 아카데미(International Saxophone Academy) 교수로서 재직중이며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낮에는 여유롭게, 저녁에는 퇴근 후 가볍게. 직장인들을 위한 저녁 공연까지 마련해, 하루의 어느 순간이든 음악과 함께하는 시간을 선물한다. 클래식을 어렵게 느꼈던 이들에게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입문용 공연으로, 음악 여행의 시작점이 되어줄 것이다.



지휘 홍석원



색소폰 브랜든 최



8월 28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29일 금요일 오전
11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국립현대무용단 <내가 물에서 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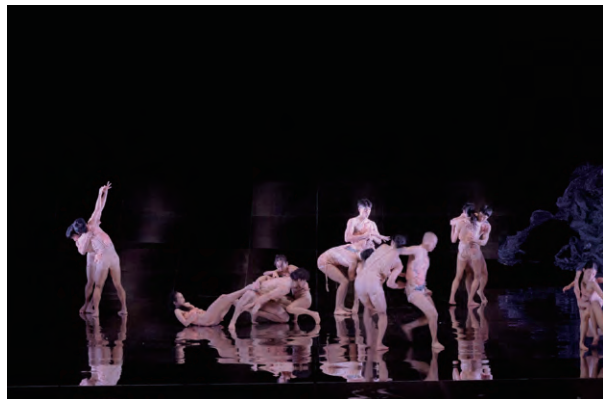
현대 사회에서 ‘몸’은 점점 더 기술과 맞물려 정의되고, 해석된다. 특히, 보조생식기술의 발전은 여성의 몸을 둘러싼 담론에 깊은 질문을 던진다. 이러한 고민을 동시대 무용의 언어로 풀어낸 작품이 부산 무대에 오른다.

(재)부산문화회관은 오는 8월 30일(토) 오후 2시, 부산시 민회관 대극장에서 국립현대무용단의 <내가 물에서 본 것>을 선보인다. 이 작품은 안무가 김보라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난임 시술 과정에서 겪은 신체적·정신적 경험을 토대로 ‘기술과 몸의 관계’를 재조명하는 무대다.

<내가 물에서 본 것>은 2024년 국립현대무용단이 발표한 신작으로, 2025년 ‘국립예술단체 지역 전막 공연 사업’의 일환으로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부산을 비롯해 세종, 안동 등에서 순회공연이 진행된다.

무대의 중심에는 ‘몸’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생물학적 신체가 아니다. 김보라 안무가는 보조생식기술을 통해 경험한 몸을 다층적인 의미로 끌어낸다.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으로 환원된 기존 생식 서사를 거부하며, 기술과 상호작용 속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몸의 형상을 탐색한다.

2022년 기준, 한국 신생아 10명 중 1명이 시험관 시술을 통해 태어났다. 그러나 이 과정에 참여하는 여성의 몸은 여전히 주변화되거나, 주체 혹은 대상이라는 이분법적 시선에 갇혀 있다. 이 작품은 그런 획일적인 시선을 벗어나, 각기 다르게 반응하는 몸의 구체적 서사를 통해 기술과 몸의 관계를 무용으로 형상화한다.



©국립현대무용단 목진우

<내가 물에서 본 것>은 개인 서사에 머무르지 않고, 보조생식기술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복합적인 맥락 속에서 성찰한다.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과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의 시선을 바탕으로, 인간과 비인간 요소가 얽힌 기술 생태를 입체적으로 드러낸다.

동시대 무용의 최전선에서, 깊이 있는 주제와 예술적 형상화가 어떻게 조우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무대. 기술에 의해 재편되는 몸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갇든 낯설지만 진실한 감정들이 어떻게 춤이 되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이번 작품은 단순히 관람을 넘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논의 지점에 함께 서는 예술의 역할을 되새기게 한다. 기술과 생명, 주체성과 경험, 그리고 그 안에서 흔들리는 몸—그 실체를 <내가 물에서 본 것>은 우리에게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이야기한다.

8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6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문의 부산시민회관 607-6000



카운터테너 이동규 <바로크로그> with 조운성&성민제&고의석

오는 9월,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질 특별한 무대, 카운터테너 이동규의 <바로크로그(Baroque'log)>는 고전과 현대, 클래식과 재즈, 서양과 동양을 아우르는 경계 없는 음악 여행이다. 이번 무대는 <팬텀싱어 4>로 대중에게 다시금 깊은 인상을 남긴 카운터테너 이동규가 재즈 피아니스트 조운성, 더블베이스스트 성민제, 기타리스트 고의석이라는 독보적인 아티스트들과 함께 선보이는 협업 무대다.

‘바로크로그’는 단순한 고전 음악 연주회가 아니다. 바로크 시대의 대표 작곡가 비발디, 몬테베르디, 퍼셀의 명곡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조명되었던 스트로치, 란디의 숨겨진 보석 같은 작품들이 새로운 옷을 입는다. 피아니스트 조운성의 재즈 감성, 성민제의 테크니컬한 저음, 고의석의 개성 넘치는 기타 연주가 어우러지며, 고전이 현대적으로 변주되고, 낯선 리듬 속에 익숙한 감성이 스며든다. 이들이 그리는 바로크 음악은 과거의 정형을 탈피한 자유로운 ‘즉흥’ 속에서 다시 살아난다.

특히 이동규는 세계 오페라 무대에서 갈고닦은 섬세한 음색과 역동적인 창법으로 ‘파리넬리의 환생’이라 불리며 바로크 스페셜리스트로 자리매김한 인물. 그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 바로크의 정수인 ‘감정의 극대화’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내며 관객에게 깊은 몰입을 선사할 것이다.

눈여겨볼 점은, 단지 고전음악에 머무르지 않고 동시대 영국의 포크송, 한국의 민요까지 아우르는 확장된 레퍼토리다. 음악의 기원을 따라 시대와 문화를 넘나드는 여정은 단순히 ‘듣는 공연’을 넘어 ‘경험하는 무대’로 관객을 초대한다. 익숙하면서도 새롭고, 고전적이면서도 파격적인 이 프로그램은 음악에 대한 경계와 편견을 허물며, 고전음악을 어렵게 느끼는 이들에게도 충분한 흡인력을 지닐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이번 공연은 각 연주자들이 가진 음악적 정체성과 개성이 자유롭게 발휘되는 드문 무대이기도 하다. 이질적일 수 있는 클래식, 재즈, 민속음악의 결합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감동을 자아낼 수 있는지, 음악적 실험과 창작의 긴장감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자리다. 정제된 기교를 넘어, 생생한 호흡과 공감으로 무장한 이 무대는 ‘지금 이 순간’의 음악을 고스란히 전달해줄 것이다.

이 가을, 과거로의 음악 여행을 떠나고 싶은 이들에게, 혹은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찾는 이들에게 <바로크로그>는 가장 완벽한 ‘입문서’이자 ‘일탈’이 될 것이다.



카운터테너 이동규



피아노 조운성



더블베이스 성민제



9월 5일 금요일 오후 7시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뮤지컬 <정글북>

명작에서 살아난 정글의 모험, 가족뮤지컬 <정글북>

1894년 영국 작가 러디어드 키플링이 발표한 소설 『정글북』은 동물들과 인간 소년의 독특한 유대와 성장 이야기를 통해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고전 명작이다. 이 작품은 20세기 후반부터 디즈니 애니메이션, 할리우드 영화,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무대로 끊임없이 재탄생하며 전 세대에 걸쳐 감동을 전해왔다. 그리고 이제, 국내 대표 공연제작사인 PMC프러덕션이 <정글북>을 대형 가족뮤지컬로 재해석해 무대 위에 올린다.

<정글북>은 부모를 잃고 정글에 홀로 남겨진 소년 ‘모글리’가 곰 ‘발루’, 흑표범 ‘바기라’, 늑대 무리와 함께 정글에서 살아가며 겪는 모험과 성장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겉으로는 정글 속 동물들과의 흥미로운 에피소드들이 중심이지만, 그 속에는 가족애, 우정, 의리, 타인에 대한 배려와 연대 같은 인간적인 메시지가 깊게 흐르고 있다. PMC프러덕션은 이 고전의 정서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첨단 무대 기술과 화려한 영상미, 그리고 다이내믹한 안무를 통해 아이들과 어른 모두가 몰입할 수 있는 무대로 승화시켰다.

무대의 중심에 있는 ‘모글리’는 단순한 동화 속 인물이 아니다.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공동체의 위기에 맞서 싸우며, 결국 스스로의 용기를 통해 모두를 지켜내는 인물로 성장해간다. 이를 통해 공연은 관객들에게 성장과 책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되묻게 한다.

이번 공연의 백미는 ‘정글’이라는 환상의 공간을 입체적으로 구현한 무대 연출이다. 플라잉 시스템과 특수효과를



통해 모글리의 여정을 따라가는 동안 관객들은 실제 정글을 걷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동물들의 특징을 살린 안무와 의상, 섬세한 드로잉 페인팅이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정글 속을 걷는 듯한 생생한 체험을 선사한다. 곰, 흑표범, 호랑이 등 다양한 동물 캐릭터들은 섬세한 드로잉 페인팅과 독창적인 의상, 각 동물의 특성을 살린 안무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인다.

이번 무대에는 PMC KIDS의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다. <난타>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송승환 예술감독을 중심으로, <해를 품은 달>의 정태영 연출, <그날들>, <레베카>의 정도영 안무 등 국내 공연계를 대표하는 창작진이 함께했다. 특히 음악은 뮤지컬 <하데스타운>과 <명성황후> 등에서 활약한 한정림 작곡가가 맡아, 웅장하고 다이내믹한 정글의 사운드로 공연 내내 극의 전개를 풍성하게 뒷받침하며, 배경과 인물들의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해낸다.

<정글북>은 어린이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웃고 감동할 수 있는 따뜻한 공연이다. 정글 속 모험과 웃음, 모글리의 용기 있는 여정은 아이에겐 잊지 못할 추억을, 어른에겐 잊고 있던 동심을 되살려준다. 2025년 여름, 가족 모두에게 특별한 기억을 선물할 무대가 찾아온다.

9월 6일 토요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4시30분 / 7일 일요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7만7천원, S석 5만5천원

문의 (재)하늘이엔티 02-333-9009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문 닫힌 동물원

클래식 공연이 어렵고 지루하다는 편견을 깨고, 아이들과 가족 모두에게 특별한 예술 경험을 선사할 무대가 찾아온다. 오는 9월 6일(토) 오후 2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열리는 키즈 클래식 총체극 <문 닫힌 동물원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는 음악과 연기, 애니메이션 영상이 한데 어우러진 융합형 공연으로, 어린이 관객들에게 쉽고 흥미롭게 클래식 음악의 세계를 안내한다.

공연의 중심에는 프랑스 작곡가 카미유 생상의 대표작 ‘동물의 사육제’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아온 이 표제 음악은 익숙하면서도 다채로운 음악적 요소로 가득하다. 이번 무대는 이러한 음악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재구성하고, ‘문 닫힌 동물원에서 벌어지는 사육제 전날 밤’이라는 흥미로운 상상을 덧입혀 한 편의 이야기로 풀어낸다.

“다 같은 피조물인데, 왜 사람만 고난주간을 지켜야 하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이야기는, 한 아이가 문 닫힌 동물원 안에 몰래 들어가 동물들이 보내는 비밀스러운 밤을 엿보며 펼쳐진다. 사자, 코끼리, 백조, 거북이, 당나귀 등 동물들이 각자 주인공이 되어 펼치는 연주와 이야기는 관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클래식 음악 속 캐릭터들을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게 만든다.

이번 공연의 가장 큰 매력은 단순한 연주회나 동화극을 넘어선 ‘총체극’이라는 점이다. 무대에는 배우 1명과 함께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플루트, 클라리넷, 실로폰, 피아노 등으로 구성된 어바웃클래식그룹 챔버팀이 함께하며, 고품격 실내악 연주를 들려준다. 여기에 스토리를 이끄는 배우의 유쾌한 연기와 환상적인 애니메이션



영상이 더해져 무대는 곧 하나의 이야기 속 세계가 된다. 음악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느끼는 경험이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의 첫 클래식 공연’으로 제격이다. 음악과 이야기, 시각효과가 어우러진 무대는 아이들에게 클래식에 대한 흥미를 자연스럽게 키워주며, 공감과 상상력의 세계로 안내한다.

클래식 애호가들에게도 색다른 감동을 전할 이번 무대는, 생상의 익살스럽고 아름다운 선율이 무대 위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얻는 경험이 될 것이다. 아이는 물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본격 무대 예술이다.

<문 닫힌 동물원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는 단순히 ‘동물의 사육제’를 들려주는 공연이 아니다. 동물의 세계를 통해 인간과 자연, 음악과 이야기, 관객과 무대가 하나가 되는 새로운 방식의 클래식 경험이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시작되는 신비로운 동물원 속 클래식 여행—그 마법 같은 시간이 가족 모두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게 될 것이다.

9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대극장이라는 들판 위 로미오 군과 줄리엣 양에게 바치는 글

글 최용혁 부산연극제작소 동넵 상임연출가

2025년 (재)부산문화회관에서 기획·제작하고, 신진청년에 술인 인큐베이팅 및 경력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공연된 <로미오와 줄리엣>은 동년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부산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성황리에 상연하였다. 부산시립극단 김지용 예술감독이 재구성과 연출을 맡았고, 부산시립극단 단원 및 전문 스태프 몇을 제외한 대다수의 출연진과 제작진을 부산 지역 청년예술인들이 맡았다. 주역인 로미오와 줄리엣, 유모 역할이 더블 캐스팅으로 진행되었고, 필자는 김현준의 로미오, 이설의 줄리엣, 박명정의 유모가 출연하는 공연을 관극했다.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다른 시대지만 각기 그 시대를 상징하는 올리비아 핫세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등이 출연한 동명의 영화로 이미 유명한 작품이다. 하물며 후세 학자들이 지정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에 버금가는 작품으로, 만약 말석이 있다면 5대 비극의 자리를 차지할만한 작품이라고도 일컬어진다. 다만 혹자는 본 희곡을 비극이 아니라 희극이라고 분류하기도 하는데 이번 공연의 우수성 또한 이 부분에 기인한다. 비극이라는 건 두 주인공 청춘의 죽음과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서사를 중심으로 놓은 것이고, 희극이라는 건 두 청춘의 희생을 통한 두 가문의 극적인 화해를 해피엔딩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지금에 이르러서는 대표적인 희비극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번 공연 역시 철저하게 희비극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중심 사건은 비극적인 태도를 유지하되 그에 이르는 다소의 이벤트는 유머러스하다. 필자 역시 학부 시절 셰익스피어를 다루는 영문학 강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을 꼽으라면 셰익스피어가 대중극작가에 가깝다는 내용이었다. 현재의 우리가 TV 앞에 앉아 넷플릭스 시리즈를 보듯이 1600

년대 당시 서민들이 단돈 1페니를 지불하고 무대 앞에 웅기종기 모여 서서 주인공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감 놔라 배 놔라, 울고 웃으며 즐겼던 대중극, 즉 일종의 막장 드라마를 썼던 작가라는 것이다. 이번 공연 역시 재구성의 방향성과 더불어 공연의 컨셉이 대중극에 가까웠다. 이름은 ‘미스’ 줄리엣이지만 하는 말과 행동은 줄리엣 ‘양’에 가까웠다. 의복의 양식과 소품의 고증 등 겉은 중세 영국의 양식을 얼추 따르고 있으나 말과 행동은 지극히 지금 우리의 것이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의도한 바 거의 번안한 것과 같은 재구성의 묘미를 잘 살린 작품이었다.

다만 1막에서 관객의 집중과 이완을 이끌어내기 위해 더 많은 희극성을 선택하였다면 일종의 메시지라는 것이 전달되는 2막, 특히 결말은 비극성이 더욱 짙게 드러날 것이라는 기대감과 달리 끝까지 일종의 말장난으로 대변되는 소극(Farce, 笑劇)의 연기는 일종의 서사적 장치라고 느껴졌다. 주로 정치적 메시지와 교훈을 통한 계몽에 목적을 두고 있는 서사극이 관객으로 하여금 ‘이것은 연극이지, 실체가 아니다’라며 극적환상으로 몰입하는 순간을 견제하는 것과 같았다. 대극장이라는 큰 무대를 두고 객석을 가로지르는 장면들과 비극적 순간에도 여지없이 터져 나오는 언어유희, 그리고 현재 시점을 드러내는 대사들은 꽤나 몰입을 방해하였다. 그와 동시에 어쨌든 이 연극은 부산의 신진 청년 예술인, 즉 청년들이 외치는 절규와 같다고 느꼈다. 시스템에 순응할 것을 종용하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특히 부산에 남아 저항하며 연극하는 청년연극인들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느꼈다면 과한 것일까? 사랑을 위하여 이별 대신 죽음을 선택한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청년연극인들이 진정 원하는 그 어떤 가치와 죽음을 동시에 두고 무대 위에서 관객을 향해 소리친다고 느꼈다. 진정이 절절하게 와닿는 순간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물론 의도가 다소 모호한 순간도 있었다. 특히 마지막 로미오와 줄리엣의 비극적 선택 후에도 이어지는 언어유희는 감히 과하다고 여겨진다. 그 순간만큼은 관객에게 생각할 여유를 주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렇게 영주의 선언까지 이어졌다면 더할 나위 없는 결말이라고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청년배우들이 정말 이 모든 코드를 이해하고 수행했을까 하는 걱정도 든다. 노래 한 소절로 웃기고 울리는 트로트의 묘미가 꺾기인 것처럼, 희비극에도 순간적으로 비틀어내는 호흡과 그에 따르는 유머의 전환이 신선한 재미로 다가온다. 이 모든 것은 작가나 연출이 제시한 대사와 상황에서 발생하지만 결국 실행하는 것은 철저히 배우의 몫이다. 이 전환을 알고 하는 것인지 흉내내는 것인지 실은 몸을 보면 알 수 있다. 말만 동동 떠다니며 몸은 전혀 호흡의 변화와 역전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이 비틀기는 생명력을 잃는다. 전반적으로 과장된 캐릭터 표현과 연기를 신선하고 능숙하게,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게 잘 소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래도 약간은 긴 공연시간이 집중을 흐리는 순간도 터려 있었던 터라 젊은 배우들이 말과 몸이 따로 노는 순

간들이 아주 약간 아쉽기도 했다. 그래도 이번 기회를 통해 부산의 중심이 될 젊은 배우들이 연기란 대사로 점철된 말 뿐인 것이 아니고, 전 인격이 참여하여야 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깨닫는 순간이었기를 바라본다.

하지만 이번 공연의 가장 큰 묘미가 청년예술인들임은 명확하다. 특히 어쩌면 유치할 수도 있는 유머와 캐릭터를 소화하고 극복한 것은 배우들의 젊음이며, 대극장 곳곳을 누비는 열정 또한 청년예술인들의 것이었다. 높은 희극적 완성도와 잘 수정된 대사, 구성은 최고의 경력을 가진 연출가의 실력이겠지만 이를 피, 땀, 눈물로 꽃피운 것은 청년예술인들의 충동이었다. 그리고 그 충동이 대극장을 가득 채워 주었기에 관객 역시도 그들과 함께 넓디 넓고 막막했던 대극장을 함께 뛰고 날 수 있었다.

이 공연이 신진 청년 예술인을 양성하는 것에만 방점이 찍힌 것은 아니다. 막이 오르자마자 느꼈던 건 오히려 나의 젊은 시절이었다. 20년 전, 처음 무대에 섰던 순간을 떠오르게 하였고, 극을 보는 내도록 추억과 감상에 젖어들게 하였다. 그 큰 극장을 위로, 아래로, 때로는 좌우로 처음 들판을 달려보는 망아지마냥 뛰어다니며 노니는 모습은 젊음 그 자체였고, 관객석에 앉은 수많은 선배 연극인들의 젊음 역시 상기시켜 주었다. 그렇게 열정으로 피운 꽃은 쉬이 시들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그들의 젊음과 앞날에 찬사를 보내며 이 글을 바친다.

부산문화회관

한국창작합창21 제18회 정기 작품 발표회
음악의 길로 나아가다'25

일 시 | 8월 12일(화) 오후 7:30 **중극장**
입 장 료 | 전석 초대
문 의 | 한국창작합창21 010-2969-5747



올해로 창단 20주년을 맞이한 '한국창작합창21'의 정기 발표회가 열린다. 이번 공연은 '어머니와 아이, 아버지' 등 가족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음악으로 풀어낸다. 다양한 세대의 작곡가들이 참여해 각자의 시선과 감성으로 담아낸 창작 합창곡들은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할 것이다. 윤소정, 이희진, 이준영 등 총 13인의 작곡가가 이번 무대에 곡을 올린다. 연주는 김강규의 지휘 아래 부산지휘자합창단이 맡고, 백현주가 합창 반주를 맡는다. 이 외에도 소프라노 김미정, 바리톤 안세범이 이현주, 최민경의 반주로 노래를 더하며, 다채롭고 풍성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현수 귀국 독주회

일 시 | 8월 13일(수) 오후 7:30 **챔버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010-3880-5917



오보이스트 이현수는 부산예중·고와 부산대 음악학과를 졸업한 후, 독일 쾰른 음악대학교에서 석사와정을 최고 성적으로 마치며 유럽 무대에서 실력을 인정받았다. 브란덴부르크 슈타츠오케스트라, 쾰른 방송교향악단 객원 연주를 거쳐 귀국 후, 부산오페라하우스 시즌오케스트라 수석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현재도 여러 오케스트라와 앙상블에서 활발히 연주 중이다. 이번 리사이들은 모차르트부터 파스칼리까지 고전과 낭만, 화려한 기교를 아우르는 곡들로 구성되었으며, 오보에 특유의 서정성과 깊이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

제17회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The Classic - 아시아의 창(窓)
부산

일 시 | 8월 12일(화) 오후 7:30 **대극장**
입 장 료 | 전석 무료(초대권 소지자에 한함)
문 의 | KNN방송교향악단 051-850-9568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부산·경남 지역 연주자들이 함께하는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이번 연주회는 정치적 지휘자가 이끄는 가운데,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 모차르트의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5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음악을 통한 교류와 협력, 차세대 유망주 발굴을 목표로 하는 이 무대는 지역 문화예술의 저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부산이 세계 음악도시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이다.

부산작곡가협회 제54회 창작곡발표회
새로운 약속 제네시스

일 시 | 8월 14일(목) 오후 7:30 **중극장**
입 장 료 | 전석 초대
문 의 | 부산작곡가협회 010-7600-4514



1983년 창립되어, 창작 활성화와 음악문화 발전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부산작곡가협회의 제54회 창작곡 발표회, '새로운 약속 제네시스'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는 피아노, 국악기, 성악 등 다양한 편성의 실내악과 가곡 신작 11편을 선보이며, 지역 작곡가들의 창작 에너지를 집약한 뜻깊은 자리다. 11명의 작곡가가 참여하는 이번 공연은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연주자들이 대거 함께해 곡의 완성도를 더한다. 이번 무대는 동시대 음악이 지닌 감각과 울림을 고스란히 전하며, 관객에게 새로운 음악적 영감을 건넨다.

그랜드 칸타타
자유의 함성!
불꽃으로 남은 이름들

일 시 | 8월 13일(수) 오후 7:30 **중극장**
입 장 료 | VIP석 5만원, R석 3만원, S석 2만원, 학생 5천원
문 의 | 부산오페라연합회협동조합 0507-1330-3001



부산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백산 안희제, 박차정, 박재혁 세 인물의 삶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기획된, 칸타타 형식으로 구성된 종합예술 공연.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성악가, 무용수, 그리고 어린이 중창단까지 다양한 출연진이 참여해 웅장한 사운드와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한다. 각 인물의 생애를 따라가며 시대의 아픔과 희망을 예술로 풀어내는 이번 공연은, 음악과 극, 춤이 어우러지는 입체적인 구성으로 관객에게 깊은 울림을 전한다. 독립운동 정신을 예술로 되새기는 의미 있는 무대가 관객들을 기다린다.

동백유랑단의 월드프로젝트
피리, 세계났다

일 시 | 8월 15일(금) 오후 5:00 **중극장**
입 장 료 | 전석 초대
문 의 | J아트브릿지 010-6295-8552



피리와 태평소, 비올라와 바이올린, 타악과 피아노가 만나 새로운 음악의 지도를 그리는 동백유랑단은 크로스오버 월드뮤직 앙상블로 주목받고 있다. 비올리스트 가영을 중심으로 결성된 이들은 각기 다른 음악적 배경을 바탕으로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을 넘나드는 독자적인 사운드를 창조해왔다. 정규 음반과 국내외 무대를 통해 입지를 다져온 동백유랑단은 이번 무대에서 한국 고유의 관악기인 피리와 태평소를 중심으로 클래식과 재즈의 리듬을 엮어내며 새로운 감각의 음악을 선보인다. 익숙한 악기들의 낯선 조합이 만들어내는 다채로운 음색과 장르를 넘나드는 유연한 해석은 새로운 음악적 경험과 깊은 울림을 전할 예정이다.

경성(京城)오페라단 초청 일 트로바토레 갈라 콘서트

일 시 | 8월 19일(화) 오후 7:30 **중극장**
입 장 료 | 전석 5만원
문 의 | 부산문화 1600-1803



부산문화 30주년을 기념해 깊은 울림을 전하는 클래식 오페라 무대가 펼쳐진다. 경성오페라단을 초청해, 주세페 베르디의 명작 <일 트로바토레>를 선

보이는 이번 공연은 고전의 품격과 강렬한 드라마가 어우러진 무대로 관객을 찾는다.

경성 오페라단은 일제강점기 조국 광복을 염원한 지식인과 예술인들의 정신을 잇기 위해 창단된 단체로, 그 시절 역사적 사건들을 창작 오페라를 통해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전하고 있다. 소프라노 홍은영, 메조소프라노 임은주, 바리톤 김홍규 등 국내외 무대에서 활약 중인 성악가들이 함께해 오페라의 진수를 들려준다.

완성도 높은 음악과 연출로 시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이번 공연은, 클래식 오페라의 진면목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센토챔버스사이아티 제14회 정기연주회 Artists in Busan, Series 1

일 시 | 8월 20일(수) 오후 7:30 **중극장**
입 장 료 | 전석 2만원(학생 1만원)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051-442-1941



센토챔버스사이아티는 부산시향 부악장 이은옥을 주축으로, 연주자와 청중의 깊은 교감을 지향하며 활동하는 실내악 단체이다. 지역의 젊은 연주자들에게 무

대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실내악을 선보이고자 창단되었으며, 이번 무대는 'Artists in Busan' 시리즈의 첫 공연으로, 부산에 정착해 활동 중인 실력과 연주자들을 조명한다.

국내외 콩쿠르에서 두각을 나타낸 비올리스트 황여진, 바수니스트 이은호를 초청해 협연 무대를 마련했으며,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브루흐의 비올라 로망스, 베버의 헝가리안 론도, 수크의 현악 세레나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실내악의 진수를 들려줄 예정이다.

박정은 귀국 비올라 독주회

일 시 | 8월 21일(목) 오후 7:30 **챔버홀**
입 장 료 | 전석 초대
문 의 | 010-3058-8640



깊이 있는 해석과 섬세한 표현력으로 주목받는 비올리스트 박정은의 귀국 독주회는 다채로운 시대와 스타일의 작품을 통해 비올라의 폭넓은 매력을 선

보이는 무대다.

브루흐의 서정적인 '로망스'로 문을 연 후, 힌데미트의 구조적이고 지적인 소나타, 가르스 녹스의 현대적인 자유성과 개성이 담긴 솔로 작품 '푸가 리브레', 그리고 브람스의 성숙한 감성이 깊이 배어 있는 비올라 소나타로 이어지며 풍성한 프로그램을 완성한다.

오랜 유학과 유럽 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연주자의 깊은 음악성과 개성이 고스란히 담길 본 무대는 피아니스트 박수홍의 섬세한 협연과 더불어 비올라 독주의 진수를 보여줄 것이다.

베이스 이희광 독창회 **추억**

일 시 | 8월 22일(금) 오후 7:30 **챔버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아트락 010-5468-4658



베이스 이희광의 독창회 <추억 Erinnerung>은 독일 가곡과 한국 가곡을 아우르며 깊은 울림을 전하는 무대다. R. 슈트라우스, H. 볼프, F. 슈베르트, C. 뢰베 등 독일 가곡의 서정성과 극적 표현, 변훈, 조혜영, 윤학준의 작품을 통해 한국 가곡의 정서와 서사를 함께 선보인다.

소프라노 신정순과 피아니스트 유한영이 함께 무대에 올라 풍성한 음악적 조화를 이룬다. 시간과 기억, 삶의 의미를 노래하는 이번 공연은 관객에게 진한 감동과 잔상을 남길 것이다.

MeiON 디즈니+지브리 오케스트라 콘서트

일 시 | 8월 23일(토) 오후 5:00 **대극장**
입 장 료 | VIP석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문 의 | 아이프로덕션 010-9184-7496



신비로운 지브리와 꿈을 담은 디즈니 명곡들이 60인조 풀 편성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사운드로 되살아난다.

하프, 바이올린, 트럼펫, 피아노 등 솔리스트들의 협연이 어우러진 이번 무대는 지브리 명작 '이웃집 토토로', '하울의 움직이는 성', '천공의 성 라퓨타' 등과, 디즈니 명작 '겨울왕국', '알라딘' 등 세대를 아우르는 주제곡으로 가득하다.

뮤지컬배우 이희주와 테너 김은국이 선사하는 깊은 감동, 재치 있는 MC의 해설까지 더해져 모두가 함께 즐기는 디즈니와 지브리 무대로 완성된다.

작곡동인 세움 제14회 정기연주회 음악극 **수궁가**

일 시 | 8월 26일(화) 오후 7:30 **중극장**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W엔터테인먼트 010-7600-4514



현대음악과 전통 판소리, 실내악을 융합한 음악극을 통해 예술성과 대중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전문 예술인단체 작곡동인 세움(SEUM). 이번에 선보

이는 작품은 전통 판소리 <수궁가>를 모티브로, 10인의 작곡가들이 각자의 음악 언어를 통합된 형식 안에 녹여낸 창작극이다. 익숙한 전래동화에 새로움을 더해 쉽고 감동적인 무대로 재탄생하며, 음악과 연극, 시각 요소가 어우러진 복합예술 형식으로 관객과 깊이 있는 소통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세움은 동시대 창작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 뉴 앙상블 제9회 정기연주회

일 시 | 8월 27일(수) 오후 7:30 **중극장**
입 장 료 | 전석 2만원(자유석)
문 의 | 더뉴앙상블 070-8095-9426



지역 내 유망한 연주자와 기획자의 협업을 위해 창단하여, 클래식 음악의 저변 확대와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해온 전문예술단체 '더 뉴 앙상블'의 아홉 번째 정기연주회가 열린다.

이번 무대에서는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1번과 슈베르트 교향곡 5번을 중심으로 고전음악의 정수를 선보인다. 지휘는 최영선, 첼로는 이일세, 악장은 임가진이 맡아 밀도 높은 해석과 조화를 이끈다.

더 뉴 앙상블은 매 연주마다 높은 완성도와 실험정신을 보여주며, 예술성과 교육적 가치가 공존하는 무대를 통해 지역 클래식 음악계에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기고 있다.

세계 정상 교향악단과 앙상블의 클래식 축제 제16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개막콘서트

일 시 | 9월 2일(화) 오후 7:30 **대극장**
입 장 료 | 유료
문 의 |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051-516-8293~4



2025 부산마루국제음악제의 문을 여는 개막 콘서트는 러시아 낭만주의의 정수를 담은 프로그램으로 관객을 만난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과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비창'이 연주되며, 깊은 감성과 극적인 선율로 무대를 채운다.

이번 음악제를 위해 결성된 BMIMF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함께, 섬세한 해석의 루스탐 레비코 베비치와 탁월한 기량의 알렉산더 야코블레프가 만들어내는 클래식 명작들이 진한 여운을 선사할 예정이다.

뮤지컬 사랑의 하츠피 - 부산

일 시 | 8월 30일(토), 31일(일) 오전 11:00, 오후 2:00, 오후 4:30 **대극장**
입 장 료 | R석 7만원, S석 6만원
문 의 | (주)창라이프 1566-6551



누적관객 123만 명의 흥행돌풍을 일으킨 영화 <사랑의 하츠피> 전격 무대화! 탄탄한 스토리와 사랑스러움을 장착한 캐릭터들, 한 번만 들어도 빠져드는 OST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킨 역대급 한국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애니메이션 영화의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은 생생하고 마술적인 연출로 잊지 못할 환상적인 경험을 선사한다.

인생의 소울메이트를 꼭 만나길 바라는 '로미'는 우연한 기회에 '하츠피'를 처음 본 뒤, 운명의 인연임을 알아본다. '로미'는 '하츠피'를 찾기위해 반대를 무릅쓰고 새로운 길을 떠나지만, 마침내 만나게 된 '하츠피'는 인간과의 소통을 거부하는데...

부산시민회관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클래식음악원 콘서트 꾸러기음악회 - 신나는 여름

일 시 | 8월 16일(토) 오후 3:00 **대극장**
입 장 료 | R석 5만5천원
문 의 | 교문 02-547-9851



가족음악회 <꾸러기 음악회>는 유아부터 어린이까지 공연장 입장에 제한이 없어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해설과 체험이 어우러진 클래식 입문형 음악회다.

공연 전에는 악기 체험, 동요 부르기, 지휘자 놀이, 오케스트라와의 합주, 왈츠 추기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어 감각을 깨운다.

지휘자의 쉽고 재미있는 해설은 클래식이 처음인 어린이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가며, 잊지 못할 음악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기억해야 할 미래 그날의 함성, 영웅

일 시 | 8월 31일(일) 오후 5:00 **중극장**
입 장 료 | 전석 무료(공연 시작전 로비에서 티켓 수령)
문 의 | (사)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051-644-5211



일제강점기, 6.25 전쟁, 징용과 피란, 그리고 이름 없이 살아낸 평범한 이들의 시간. 그 치열했던 역사 속 '사람'을 다시 무대 위로 불러내는 공연, 기억해야 할

미래가 열린다.

부산국악협회국악관현악단과 창극반주단 '흥향'이 함께 꾸미는 이번 무대는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날의 함성에서 시작해, 순국의 넋을 기리는 음악, 이름 없는 영웅을 위한 헌정곡, 아리랑과 애국가로 이어지는 피날레까지, 네 개의 이야기로 구성된다.

시대의 고통을 묵묵히 견뎌낸 사람들을 기억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어둠을 마주하며, 음악을 통해 오늘의 우리가 가져야 할 책임과 감사를 전한다.

광복 80주년,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음악회

일 시 | 8월 17일(일) 오후 3:00 **대극장**
입 장 료 | 전석 무료
문 의 | 사상구청 051-310-4066



사상구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이안오케스트라, 해군작전사령부 군악대가 함께하는 '광복 80주년 나라사랑 음악회'가 열린다. 이번 공연은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과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자 기획되었으며, '되찾은 빛 광복, 모두 함께 영광, 위대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다.

세 단체의 합동 무대는 120여 명의 단원이 함께 꾸미는 대규모 편성으로, 웅장하고 감동적인 선율을 선사할 예정이다.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의 하모니 속에서 관객들은 음악을 통해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특별한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안차도; 그 섬의 아이들

일 시 | 8월 23일(토)~24일(일) 오후 4:00

소극장

입 장 료 | 전석 4만원

문 의 | 극단 우뚝 010-6606-0782



바다 한가운데, 외부와 단절된 섬 '안차도'. "바깥은 죽음이다"라는 신념 아래 어른들이 지배하는 이 폐쇄된 사회에서 아이들은 마약을 만들며 살아간다.

구원을 위해 규율에 복종하는 삶 속, '6번'은 점점 바깥세상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섬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외부인이 나타나고, 6번은 그를 통해 자신이 속한 세계의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연극 <안차도; 그 섬의 아이들>은 억압과 통제를 넘어서려는 아이들의 눈을 통해 자유와 진실, 그리고 구원의 의미를 강렬하게 묻는다.

제13회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극장공연

만담어셈블

일 시 | 8월 30일(토) 오후 3:00, 6:00 소극장

문 의 | BICF 051-916-8828



두 명의 코미디언이 마이크 하나만을 앞에 두고 펼치는 가장 스릴 넘치는 코미디 장르, 만담! 소도구도, 캐릭터 분장도 없이 오직 대화로 웃음을 만들어내는 순도 100%의 무대가 펼쳐진다.

뽕송국(곽범·이창호), 스낵타운(강현석·이재율), 보따(김원식·조다현), 유스데스크(구정모·유영우), 독사대(오디다·시웃시웃·우다온), 뽕원(전예원·양혜원), 몽키벨트(김진경·오지택), 디스타임(김영구·송인호)까지, 메타코미디의 최전선에서 활약 중인 콤비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1초 매진의 신화를 써 내려가는 만담 공연 <만담어셈블>, 웃음의 정수를 경험할 시간!

제13회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극장공연

소통왕 말자할때

일 시 | 8월 31일(일) 오후 3:00, 6:00 소극장

문 의 | BICF 051-916-8828



라이브 스탠딩 코미디 토크쇼 <말자할때>! 대한민국 최고의 소통왕 김영호와 정범균이 만났다.

방송보다 더 시원하고 더 화끈하게, 거침없는 입담으로 관객들과 제대로 소통한다. 웃음이 필요한 순간, 고민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다. 찐하게 웃고 싶은 어른들을 위한 19세 이상 관람가 토크 코미디 한판!

입담, 공감, 배꼽 잡는 웃음까지 모두 준비된 쇼가 부산 코미디 페스티벌 무대를 뜨겁게 달군다.

무용

어린이를 위한 마술로 들려주는 환경이야기 에코백

일 시 | 8월 22일(금)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일반 1만원, 어린이 5천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051-519-5661~4



어린이를 위한 매직컬 환경 퍼포먼스 <에코백>은 마술, 마임, 그림자극 등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진 공연으로, '깨끗한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한다.

환경지킴이 캐릭터 에코, 그린, 박스맨, 라미가 등장해 일상 속 환경오염 문제와 실천 방법을 재미있고 생생하게 풀어낸다.

생활 쓰레기로 만든 소품과 택배 상자, 빗자루, 핸드폰 등 친숙한 오브제를 활용한 무대 연출과 더불어, 재활용과 새활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 콘텐츠도 함께 마련된다.

영상

SAC on Screen

영상으로 만나는 이은결 더 일루션

일 시 | 8월 13일(수) 오후 7:00

영도문화예술회관 절영홀(소공연장)

입 장 료 | 무료(사전예매 필수)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051-419-5571~4



예술의전당 공연을 시리즈로 만나볼 수 있는 'SAC on Screen'. 이번에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의 대표작 <더 일루션>을 상영한다.

국내 최초 라스베이거스 진출을 비롯해 전 세계 무대에서 활약해온 이은결은 마술을 예술로 확장한 인물로, 10년 넘게 사랑을 받고있는 <더 일루션>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춘다.

단순한 마술의 나열이 아닌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공연으로, 예술적 상상력과 기술이 어우러진 독창적 무대로 '마술'을 넘어 '일루션'이라는 장르를 완성시킨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뮤지컬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 부산

일 시 | 3월 7일(금)~12월 31일(수) 수 오후 4:30,

목·금 오후 7:30, 토 오후 2:00, 5:00,

일 오후 2:00 KNN시어터

입 장 료 | 전석 6만원

문 의 | 극단 지우 051-664-8400

늦은 봄날 - 부산

일 시 | 6월 6일(금)~12월 31일(수) 수~금

오후 7:00, 토 오후 2:00, 5:30

일·공휴일 오후 2:00 가온아트홀 2관

입 장 료 | 6만원(네이버 예매 시 54% 할인)

문 의 | 010-3495-8291

드림하이 - 부산

일 시 | 8월 8일(금)~8월 10일(일) 금 오후 7:00,

토 오후 2:00, 6:30, 일 오후 2:00

동서대학교 소향씨어터

입 장 료 | R석 15만원, S석 13만원

문 의 | YES24 1544-6399

음악

제28회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자연과 현악

일 시 | 8월 7일(목) 오후 7:3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입 장 료 | 전석 초대

문 의 | 010-4909-7444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의 제28회 정기연주회 '자연과 현악'이 8월 7일 경성대학교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무대는 체코 작곡가 레오시 야나체크의 서정적이고 목가적인 <현을 위한 모음곡>으로 문을 열고, 이어 비발디의 대표작 <사계> 전곡이 연주된다.

예술총감독이자 바이올리니스트 임병원이 함께 연주하며, 봄·여름·가을·겨울로 펼쳐지는 계절의 변화와 생명력 넘치는 선율을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현악의 섬세한 울림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리는 무대다.

해운대문화회관의 '2025 피콜로 오페라 페스티벌'

일 시 | 8월 16일(토)~30(토)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R석 2만원, S석 1만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051-749-7651



16일 오후 5:00
오페라 <사랑의 묘약>
오페리움 한울이 선보이는 오페라 <사랑의 묘약>은 순진한 청년 네모리노가 사랑을 얻기 위해 영터리 약장수에게 속아 '사랑의 묘약'을 마시며 벌어지는 유쾌한 해프닝을 담은 작품이다. 묘약 없이도 진심은 통한다는 따뜻한 메시지와 함께 밝고 경쾌한 에너지를 전한다.



22일(금) 오후 8:00,
23(토) 오후 5:00
오페라 <결혼 대소동>
오페라단 나눔은 지역 음악인들과 함께하며, 젊은 성악가를 발굴하고 문화 소외 계층과의 나눔을 실현

동래문화회관이 선보이는 지역 예술단체의 무대
숲속의 뮤지컬 페스티벌

일 시 | 8월 9일(토)~30일(토)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소극장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동래문화회관 051-550-6611



9일(토)
오후 2:00, 5:00 소극장
<복순이 할배>
아트레블루션의 창작 뮤지컬 <복순이 할배>. 복지학과 실습생 태수는 괴짜 독거노인 복순이 할아버지의 집에 봉사를 가게 된다. 옛 연인 지혜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사랑의 의미를 배우고자 하지만, 눈치 없고 답답한 성격 탓에 매일같이 복순이 할아버지에게 혼이 나기 일쑤다. 과연 태수는 제대로 사랑을 배울 수 있을까?

14일(목) 오후 7:30 대극장

가족뮤지컬 <피터팬>

희망극단이 가족 뮤지컬로 그려내는 동화. 웬디와 존, 마이클 남매는 방 안에서 피터팬의 흔적을

천하는 단체다. 이번 공연은 로시니의 오페라 <결혼 대소동>으로, 부유한 상인의 딸 포바와 그녀의 진정한 사랑을 지키려는 연인 에도르도의 이야기. 유쾌한 전개 속에서 진심과 화해, 사랑의 가치를 전한다.



오페라 <어린왕자>는 사막에 불시착한 파일럿과 신비로운 소년 어린왕자의 만남을 그린 작품이다. 여러 별을 여행하며 만난 인물들과의 이야기, 그리고 장미를 향한 사랑을 통해 삶의 본질을 따뜻하게 전한다.

발견하고 점점 그의 존재를 알게 된다. 어느 날 밤, 침실 창문을 열고 날아든 피터팬은 세 남매를 신비한 섬 네버랜드로 초대한다. 꿈과 모험이 가득한 네버랜드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여정이 무대 위에 환상적으로 펼쳐진다.

23일(토) 오후 2:00, 5:00 소극장

블랙코미디 <베로니카>

극단 원테이크의 블랙코미디.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베로니카는 삶을 끝내려 하지만 가까스로 구조되어 빌레트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녀는 더 빨리 죽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말을 잃은 에드워드와 마주하며 예상치 못한 감정과, 병원에서 맞닥뜨린 기묘한 사건들 속에서 흔들리는 그녀를 통해 삶의 본질을 되묻는다.

30일(토) 오후 2:00, 5:00 소극장

코미디 <미스터 마담>

7월 동래문화회관 공포연극 시리즈를 빛낸 빅픽처스테이지의 또 다른 작품. 한 사건을 계기로 잘 나가던 로펌 변호사에서 스스로 여자가 되어 바를 운영하게 된 '마담'과, 그곳을 자주 찾는 극단 사장 '일홍', 아르바이트를 지원한 '다울'이 함께 만들어가는 유쾌하면서도 따뜻한 삶의 이야기.

제72회 예술공감

동화 읽는 피아니스트의
창작동화 '물방울의 여행 2',
'역사 특~ 흥부와 놀부'

일 시 | 8월 12일(화) 오후 7:30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 장 료 | 전석 1만원(예매 20% 할인)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051-220-5811~4



제72회 예술공감 무대는 '동화 읽는 피아니스트'의 창작동화 <물방울의 여행 2>와 <역사 특~ 흥부와 놀부>로 꾸며진다. '2025년 그림책의 해'를 맞아 기획된 이번 공연은 그림책을 매개로 책과 음악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친숙한 이야기와 클래식 음악이 어우러져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무대로, 관객들에게는 클래식 연주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공감하며 즐기는 특별한 예술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22년의 역사, 금정수요음악회 Jouer Bass Ensemble 제2회 정기연주회

일 시 | 8월 13일(수)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051-519-5664



2022년에 결성된 Jouer Bass Ensemble은 부산에서 쉽게 만나기 어려운 더블베이스 연주자들이 모여 만든 전문 앙상블로, 깊고 풍성한 저음의 매력을 관객에게 전하고자 활동 중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프랑수아 랑바스의 '4대의 베이스'를 위한 Kobold'를 비롯해 총 6곡의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일반적으로 오케스트라의 뒤편에서 저음을 책임지는 악기인 더블베이스가 이번 공연에서는 주인공이 되어, 웅장하면서도 섬세한 음색으로 새로운 음악적 울림을 들려줄 예정이다.

22년의 역사, 금정수요음악회 부산현대음악앙상블 쇼스타코비치 서거 50주년 기념음악회

일 시 | 8월 20일(수)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051-519-5664



부산현대음악앙상블의 쇼스타코비치 서거 5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 이규봉 예술감독을 중심으로 구성된 부산현대음악앙상블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색소폰, 피아노 등 다양한 악기 구성으로 현대음악의 깊이와 색채를 전한다.

알프레드 슈니트케의 '전주곡: D. 쇼스타코비치를 추모하며'를 비롯해 총 8곡의 레퍼토리로 구성되어, 쇼스타코비치의 음악적 유산을 조명하고 현대음악의 흐름 속에서 그의 존재를 되새기는 시간이 될 것이다.

고향사랑 기부자와의 만남의 날, 구민 맞춤 공연 부산독일가곡연구회와 함께 하는 갈라 콘서트

일 시 | 8월 19일(화)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대공연장)
입 장 료 | 무료(사전예매 필수)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051-419-5571~4



영도문화예술회관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자와 지역민이 함께하는 클래식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마련되었다.

소프라노 김현주·정애린·장은영, 메조소프라노 강수정 등 국내외에서 활약 중인 성악가들이 출연하며, 박성근 지휘자의 미래필하모니오케스트라가 함께한다. 정통 독일가곡, 오페라 아리아, 칸초네 등 다채로운 레퍼토리와, 트럼펫 연주자 백도영과 베이스 윤지운 등 신예 음악가들의 무대로 클래식 애호가들 물론 일반 관객들도 즐길 수 있는 풍성한 무대다.

영도문화예술회관 수요상설공연 onStage 조선버전 빛나는 밤 : 햇불

일 시 | 8월 20일(수)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절영홀(소공연장)
입 장 료 | 일반 1만원, 할인대상 5천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051-419-5571~4



조선버전은 한국의 정서를 품은 국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전통과 대중을 잇는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가는 창작 국악팀이다. 제34회 KBS국악대경연 단체부문 동상 수상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이들은, 전통과 대중을 잇는 새로운 국악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독립운동가를 주제로 한 창작곡 전곡으로 구성되며, <안개숲>, <유성루>, <독무> 등 각 곡은 독립운동가를 상징하며 정성스럽게 기획되었다. 9인의 연주자들이 전하는 다채로운 국악기의 울림 속에서, 뜨겁게 타오르던 그들의 정신이 관객의 마음에 고요히 스며들 것이다.

울속문화회관 아트 클래스 시리즈Ⅶ 여름, 일과 휴가

일 시 | 8월 19일(화) 오후 7:30
울속문화회관 대공연장
입 장 료 | 1층 1만원, 2층 5천원(예매 20% 할인)
문 의 | 울속문화회관 051-220-5811~4



미술과 클래식이 어우러지는 감성 무대 '아트 클래스'가 일곱 번째 무대로 관객을 만난다. 이번 공연은 '여름, 일과 휴가'를 주제로 노동과 휴식이 담긴 영화들을 전원경 교수의 깊이 있는 해설과 함께 감상하며, 작품과 어우러지는 클래식 명곡들도 함께 만난다.

영화의 정서가 담긴 차이콥스키, 모차르트, 드보르자크, 브람스의 선율을 피아니스트 최성근, 바이올리니스트 권아름, 첼리스트 배주연, 클라리네티스트 차호철의 섬세한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미술과 음악이 만나는 이번 무대는 관객들에게 여름날의 예술을 사색하는 특별한 시간을 선물할 것이다.

제25회 라이징뮤지션 콘서트 리얼풍류

일 시 | 8월 21일(목) 오후 7:30
울속문화회관 소공연장
입 장 료 | 전석 1만원(예매 20% 할인)
문 의 | 울속문화회관 051-220-5811~4



젊은 감성과 전통의 숨결이 만나는 '라이징뮤지션 콘서트'의 스물다섯 번째 무대는 퓨전국악밴드 '비원'이 장식한다. '비원(悲願)'이라는 이름에는 간절한 염원이라는 뜻에 담긴 예술에 대한 비장한 각오가 담겨 있다.

전통악기와 서양악기의 조화를 통해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고유의 음색과 현대적 감각을 엮어 새로운 한국음악의 길을 모색해온 이들은 깊은 울림과 세련된 리듬으로 관객의 감각을 두드린다. '대취타 with Treasure', '공무도하가', '이별가' 등 시대와 정서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진다.

제37회 굿모닝콘서트 경계를 허무는 예술, 시대를 관통하는 선율

일 시 | 8월 22일(금) 오전 11: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5천원(커피 포함)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051-220-5811~4



자연 속 정원에 자리한 을숙도문화회관에서 모닝커피와 함께 즐기는 감성 무대, 굿모닝콘서트가 열린다. 이번 무대는 섬세한 음악성과 깊이 있는 해석으로 주목받는 실력과 연주자들로 구성된 킨 앙상블이 함께한다.

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무대를 선보이는 킨 앙상블은 클래식부터 가곡, 뮤지컬, 애니메이션 음악, 영화 음악, 재즈까지 장르와 시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로 관객과 만난다.

특히 각 곡의 본질을 섬세하게 포착하고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연주는 시처럼 깊은 울림과 여운을 전하며, 아침을 여는 감미로운 예술의 순간을 선사한다.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4대의 바이올린이 있는 아침

일 시 | 8월 26일(화) 오전 11시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2만원(커피 포함)
 문 의 | 금정문화회관 051-519-5661~4



딱수 달 마지막 주 화요일에 열리는 '11시 브런치 콘서트'는 실력 있는 연주자들의 무대와 전문 해설이 어우러지는 고품격 음악회.

8월의 무대는 '4대의 바이올린이 있는 아침'이라는 주제로, 르클레르, 비오티, 뱀, 라흐너, 당글라 등의 각자 다른 매력을 지닌 곡들을 통해 풍성한 현악의 매력을 전한다. 네 명의 바이올리니스트들의 연주와 음악 평론가 조희창의 섬세한 해설이 더해지며, 아침 커피 한잔과 함께 음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순간을 선사한다.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기획 윤형주 토크 콘서트

일 시 | 8월 22일(금)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대공연장)
 입장료 | 일반 3만원, 정기회원 2만1천원, VIP회원 1만5천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051-419-5571~4



2025년은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이자, 민족시인 윤동주 서거 80주기를 맞는다. 이번 공연은 그의 육촌 동생이자 가수인 윤형주가 유족의 시선으로 들려주는 운동주의 삶과 시로 꾸며진다.

운동주의 시 낭송을 비롯해 무덤 앞에서 만든 헌정곡 <윤동주님에게 바치는 노래>, 그가 태어나고 잠들어 있는 복간도를 노래한 <선구자>, 그리고 윤형주의 대표곡들이 무대에 오른다.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깊은 여운을 남기는 이 무대에는 바리톤 전병곤이 특별출연해 따뜻한 울림을 더한다.

제73회 예술공감 토끼의 간을 찾아라

일 시 | 8월 26일(화)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051-220-5811~4



'토끼의 간' 이야기로 잘 알려진, 익숙한 판소리 수궁가의 이야기를 그림과 음악으로 새롭게 풀어낸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이야기꾼이 전달자의 역할을 맡아 관객의 호기심을 자연스럽게 이끌고, 장면마다 어우러지는 그림이 음악에 대한 몰입도를 높인다. 이야기와 그림, 연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되며, 음악을 통해 고전 속 이야기가 새롭게 살아난다. 전통과 현대의 감각을 조화롭게 녹여낸 이번 무대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창작 공연으로, 우리 전통 이야기에 대한 색다른 접근과 해석을 제시한다.

부산마루국제음악제 프린지콘서트 듀엣 인 뮤즈

일 시 | 8월 22일(금) 오후 7:30 BOF 아트홀
 입장료 | 2만원
 문 의 | 0507-1330-3001



부산마루국제음악제를 앞두고 축제의 설렘을 한층 끌어올릴 프린지콘서트 다섯 번째 무대가 펼쳐진다. 오페라, 오페레타, 팝 등 다양한 장르의 듀엣곡들을 섬세하게 편곡하여 소극장 특유의 밀도 있는 감성과 함께 선보인다.

윤장미(소프라노)와 장병혁(바리톤)의 깊이 있는 호흡, 신세라(피아노), 김정완(리코더)의 감각적인 연주가 더해져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넘나드는 풍성한 무대를 완성한다. 음악축제의 본격적인 시작 전, 잔잔한 여운을 남길 특별한 무대가 될 것이다.

8월 On Stage Concert 라 뮤즈(꽃, 피우다)

일 시 | 8월 26일(화)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무대 위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051-749-7651



클래식과 시각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예술 팀 라 뮤즈가 선보이는 아트 콘서트 <꽃, 피우다>는 예술 속 꽃의 상징성과 아름다움을 다채로운 클래식 음악으로 풀어낸다.

구스타보 랭제의 '꽃노래', 가브리엘 포레의 '나비와 꽃', 드리브의 오페라 <라크레메> 중 '꽃의 이중창',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남국의 장미', 차이콥스키의 발레 <호두까기 인형> 중 '꽃의 왈츠' 등 시대를 초월한 명곡들을 통해 꽃이 지닌 감정과 이미지를 감각적으로 표현하며, 예술 속에 피어난 꽃의 이야기를 관객에게 전한다.

22년의 역사, 금정수요음악회 소프라노 오예은 독창회 **아리아리랑**

일 시 | 8월 27일(수)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051-519-5664



연세대학교 성악과와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 국립 음악원을 졸업한 소프라노 오예은이 무대에 올라, 깊이 있는 음악성과 섬세한 감성으로 관객을 만난다.

플루트 연주자 길명훈, 피아니스트 권수빈과 함께하는 협연으로 더욱 풍성한 울림을 더하며, 이 영조의 <소프라노를 위한 세 개의 아리아랑>을 비롯해 총 5곡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적 정서와 서정미를 노래한다.

특별기획 공연 **굿바이 썸머 콘서트**

일 시 | 8월 28일(목) 오후 7:30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 장 료 | 1층 2만원, 2층 1만원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051-220-5811~4



여름의 끝자락, 무더위를 시원하게 마무리할 '굿바이 썸머 콘서트'가 관객을 찾아온다. 이번 공연은 부산콘서트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선사하는 무대로,

클래식의 깊이 있는 울림과 정서적 위로를 전하고자 기획되었다. 2007년 창단된 부산콘서트필하모닉은 다양한 레퍼토리와 완성도 높은 연주로 지역 공연문화의 수준을 높여온 민간 오케스트라로, 이번 여름 특별 공연에서 '산체스의 아이들', '베사메 무초', '무인도', '사물놀이 협연 신모듬' 등 여름의 감성을 담은 다채로운 곡들로 무대를 채운다. 울속도문화회관에서 선사하는, 뜨거운 여름의 끝에 어울리는 특별한 음악 선물을 기대할 수 있다.

17번째 로사앤아미치 **탤런트 이경영의 연기인생노래**

일 시 | 8월 29일(목) 오후 7:30
가톨릭센터 공연장 '공간 101.1'
입 장 료 | 2만원
문 의 | 0507-1330-3001



소프라노 윤장미가 진행하는 특별한 음악토크 콘서트, '로사앤아미치'. 17번째 무대를 맞아 탤런트 이경영의 연기 인생을 음악과 이야기로 풀어내는 특별한 모노 콘서트로 꾸며진다.

데뷔 47년 차, '하면 된다, 안되면 되게 하라'는 신념 아래 왕에서 내시, 대통령에서 거지까지 수많은 배역을 소화해 온 이경영은 이번 무대에서 그의 삶과 연기를 담은 진솔한 이야기와 함께 노래를 들려준다. 무대와 삶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경영만의 인생드라마가 감동과 울림을 전하는 시간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오충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파이프 오르간 인 빈야드**

일 시 | 9월 2일(화) 오후 7:30 부산콘서트홀
입 장 료 | VIP석 7만원,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 의 | (사)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051-621-4577



부산 최초의 클래식 전용홀 '부산콘서트홀' 개관을 기념하는 뜻깊은 무대가 펼쳐진다. 클래식 전통을 30년 넘게 이어온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가 준비한

이번 정기연주회는 빈야드 스타일의 공연장 구조와 4,406개의 파이프를 구성한 파이프오르간의 위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감동을 선사한다. 1부에서는 하순봉 작곡가가 부산의 정체성을 담아 창작한 교향곡 제1번 '부산(釜山)'을 세계 초연하며 헌정하고, 2부에서는 부산 출신 세계적 오르가니스트 신동일이 생상사 교향곡 제3번 '오르간'을 통해 파이프오르간의 압도적인 울림을 전한다. 새로운 문화지도를 그려나갈 클래식의 밤이 관객을 기다린다.

연극

코믹추리 연극 **한여름 살인사건**

일 시 | 7월 19일(토)~8월 24일(일) 평일 오후 4:30, 주말(공휴일) 오후 2:00/4:30
아델티씨어터 1관(수영구 광안해변로 193, 7층)
입 장 료 | 3만3천원
문 의 | 0507-1388-1447



이 등장하며 각자의 알리바이와 사연을 펼친다. 공연 중 실제로 투표를 통해 범인을 추리하고 결말을 바꿀 수 있어, 매회 다른 전개와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 코미디와 추리, 관객참여가 어우러진 이 작품은 연극의 재미를 한층 끌어올리며 웃음과 긴장감을 동시에 선사할 예정이다.

출구 없는 방 - 부산

일 시 | 7월 31일(목)~8월 3일(일) 목·금 오후 7:30, 토 오후 4:00, 일 오후 3:00
가온아트홀
입 장 료 | 2만 3천원~2만 5천원
문 의 | 010-8932-5733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강렬한 문장으로 잘 알려진 장 폴 사르트르의 희곡 <출구 없는 방>이 무대에 오른다.

죽음 이후 '지옥'이라는 공간에 갇힌 세 사람, 그들 앞에 펼쳐지는 건 불타는 형벌이 아닌 서로의 시선과 말에서 비롯된 고통이다. 이 공연은 타인의 시선에 얽매며 살아가는 현대인의 자화상을 섬뜩하게 비추며, 인간 존재와 자유, 책임에 대해 묻는다. 극한의 밀실 속에서 벌어지는 심리 드라마, 철학적 메시지를 날카롭게 던지는 현대극의 고전. 과연 당신에게 '지옥'은 무엇인가?

연극 몽키트랩

일 시 | 8월 1일(금)~17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6:00, 일요일 오후 3:00
어댑터씨어터 2관(수영구 광안해변로 193, 7층)
입 장 료 | 3만원
문 의 | 0507-1388-1447



▼▼

연극 <몽키트랩>은 우리가 삶에서 쥐고 있는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다. 꿈일 수도, 목표일 수도 있는 그것은 때로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만, 동시에 점점 더 깊은 외로움과 고립으로 이끈다. 잘하고 싶은 마음에, 잃을까 두려운 마음에 더욱 손에 힘을 주다 보면 결국 자신을 옥죄게 된다. 놓아야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놓을 수 없다. 이 연극은 그런 내면의 갈등과 딜레마, 그리고 함께할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회복과 용기에 대해 이야기한다.

국립극단 십이야

일 시 | 8월 8일(금)~9일(토)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 장 료 | R석 5만원 S석 4만원
문 의 | 051-780-6060



▼▼

셰익스피어 희극의 대표작이자 세계인이 사랑하는 고전 <십이야>가 한국 전통문화와 만났다. 국립창극단이 선보이는 <십이야>는 한국적 색채로 재탄생한 창극 버전의 셰익스피어 희극으로, 전통 연극과 음악, 그리고 화려한 무대미술이 어우러진 새로운 창극이다. 쌍둥이 남매의 엇갈린 운명과 사랑, 정체성 혼란이 뒤섞인 유쾌한 오해와 해프닝이 전통 음악과 창극 배우들의 열연 속에 펼쳐진다. 마당놀이와 창극의 경계를 넘나드는 연출, 신명나는 장단, 그리고 현대적 감각이 가미된 무대는 고전을 새롭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2025 D.FESTA 소극장 축제 in 부산 세 친구의 국토대장정 닥치고 전진

일 시 | 8월 21일(목)~22일(금) 오후 7:30
하늘바람소극장
입 장 료 | 3만원
문 의 | 010-4480-8109



▼▼

100% 창작 공연을 지향하는 극단 드림큰씨어터가 신작 <닥치고 전진>으로 돌아왔다. '취중진담'처럼 진짜 이야기로 관객과 소통하고, 연극에 취하자는 뜻을 지닌 이 극단은 매년 새로운 실험과 도전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작품은 세 친구의 국토 대장정 여정을 그린다. 걷고 또 걸어도 끝나지 않는 걸음지옥 속에서, 삶이라는 지옥을 닥치고 전진으로 뚫고 나가는 낭만 바보 세 열간이의 이야기. 웃기지만 짝하고, 무모하지만 뜨거운 이 여정은 결국 우리 모두가 지나온 '청춘'이라는 이름의 승전일지도 모른다.

연극극 어느 골짜기에 관한 논쟁

일 시 | 8월 30일(토)~9월 6일(토) 목·금 오후 7:30, 토 오후 5:00, 일 오후 3:00
효로인디아트홀 소극장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극단 새벽 051-245-59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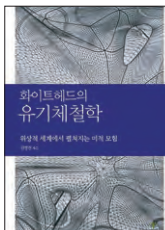
▼▼

연극극 <어느 골짜기에 관한 논쟁>은 비무장지대의 한 골짜기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을 통해 한반도 분단의 현실과 그 속에 살아온 사람들의 삶을 다층적으로 그려낸다. 저승길을 앞둔 영지의 이야기와, 그녀에게 들려주는 임선녀의 삶은 1945년부터 1995년까지의 격동의 근현대사를 담고 있다. 틀극과 극중극의 이중 구조, 전통연희의 놀이성과 서사기법이 어우러져 깊은 울림을 전하며, 한국적이면서도 인류 보편적 이야기를 연희적으로 풀어낸 극단 새벽의 대표 레퍼토리 작품이다.

행사

8월 아카데미 시네바움(CINEBAUM)

일 시 | 매주 월 시네바움(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225)
문 의 | 시네바움 010-2774-3455(문자예약)



▼▼

4일(월) 오후 7:00
한강과 화이트헤드: 소통의 철학
- 김영진(대구대 창조융합학부 교수)
11일(월) 오후 7:00
사꾼이자 아나키스트 시인, 도연명
- 박홍규(영남대 명예교수)
18일(월) 오후 7:00 경계없는 예술: 융합의 미학
- 하광식(부산대 명예교수)
25일(월) 오후 7:00 시네바움 스크리닝: 보이지 않는 영화들 <소리 굴다리>
- 구파수 룬호(감독), 김영광(영화평론가)
첫 목요일 오후 5:00 <중국어로 읽는 당시 삼백수>
마지막 목요일 오후 5:00 <하이쿠 산책>

김옥균의 클래식 인문학강좌 클래식으로 떠나는 인문학 기행

일 시 | 8월 12일(화)~26일(화) 매주 화요일
오후 7:00 부산진구 평생학습관 강의실4
입 장 료 | 무료(선착순 30명)
문 의 | 051-605-4875

▼▼

프로그램
- 영화 '스타워즈' 작곡가 존 윌리엄스 L.A필하모닉 클래식 헌정 콘서트 실황 감상회
- 앙드레 류 '브라질 콘서트' 감상회
- 빈필하모니오케스트라 친부른 궁전 2025 여름 밤 콘서트 실황 감상회

낭만파 작곡가의 만남 & 렉처 콘서트

일 시 | 8월 19일(화)~10월 14일(화) 매주
화요일 오전 10:00 동래구 평생학습관
입 장 료 | 무료(선착순 30명)
문 의 | 051-550-4467

▼▼

- 출연: 클래식기타 고충진, 바리톤 한성권, 오보에 박종관, 플루트 박찬엽/장국태, 바리톤 배용

김옥균의 클래식 뮤직 아카데미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다송뮤직 아트홀(UN평화공원 옆)
입 장 료 | 2개월 10만원
문 의 | 김옥균 010-6367-0149



클래식 초심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클래식 뮤직 아카데미’는 전 MBC PD이자 클래식 해설가, 시인, 음악치료사로 활동 중인 김옥균 음악감독의 쉽고 흥미로운 해설과 함께 진행된다.

프로그램

- 홀스트 관현악 모음곡 ‘혹성’ 발레 공연
- 뮤지컬 영화 ‘미스 사이공’ 감상
- 정명훈과 임윤찬의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4번 협연 공연 실황
-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조지 윈스턴 공연 실황
- 푸치니 오페라 ‘서부의 아가씨’ 전막 감상
- 미국 컨트리 가수 ‘존 덴버’ 28주기 라이브 콘서트 특집
- 슈베르트 교향곡 9번, 말러 교향곡 1번

세계음악과 노래여행

일 시 | 8~10월 매주 금요일 오전 10:50
해운대문화회관 3층 회의실
입 장 료 | 2만원(1회 2만원)
문 의 | 박진영 010-3642-6436(문자 문의)



각 나라를 대표하는 작곡가와 유명 연주자의 영상을 통해 클래식을 쉽고 흥미롭게 소개하는 ‘클래식 뮤직 아카데미’. 민요, 가곡,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 체험과 함께 중창단 활동, 실황 감상, 음악회 연계 수업 등을 통해 클래식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넓혀가는 참여형 강좌다.

프로그램

바흐, 베토벤, 브람스, 바그너 등 독일 대표 작곡가

전시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홍민수의 도예전 **법고창신**

일 시 | 7월 28일(월)~8월 3일(일) 오전 10:00~
오후 6:00 부산예술회관 3, 4층 전시장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부산예술회관 051-631-1377



‘법고창신(法古創新)’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도예가 홍민수는 전통 분청사기의 기법을 현대적 조형 언어로 재해석하며 예술과 일상, 공예와 현대미술의 경계를 넘는다.

‘도시 이미지-도시 미학’, ‘풍경’, ‘미래 도시’ 시리즈는 분청의 상감기법에 현대 도시의 풍경과 상경을 담아내어 전통의 미감과 감성적 울림을 동시에 전한다.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도자기로 공룡 가족 만들기’도 함께 진행되어 가족 모두가 함께 하는 예술의 장으로 확장된다.

영도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

고산타 초대展 **Busan Holiday, sweet moments!**

일 시 | 8월 1일(금)~25(월) 오전 10:00~오후 6:00 영도문화예술회관 선유갤러리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051-419-5571~4



부산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일러스트레이터 고산타의 전시, ‘부산의 휴일, 달콤한 순간들’은 바다의 도시에서 보내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에 따뜻한

한 시선을 더한다. 영화 ‘로마의 휴일’에서 영감을 받아, 관람객이 마치 오드리 햅번이 되어 작품 속 풍경을 거니는 듯한 감성을 선사한다. 맛있는 음식, 오래된 음악, 반려동물처럼 곁에 있는 소소한 행복들이 그림 속에 담겨 있으며, 그 평범함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의미임을 전한다. 부드러운 색감과 따뜻한 감성의 화풍 속에서, 관람객은 잠시 일상의 속도를 늦추고 마음을 쉬어갈 수 있다.

BNK부산은행갤러리 8월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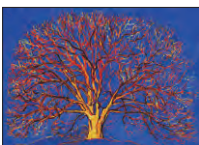
일 시 | 8월 5일(화)~9월 8일(월)
BNK부산은행갤러리(중구 광복중앙로 13, 2층)
문 의 | 051-246-8975, 051-620-3813



5일(화)~14일(목)
<문대호 개인전>
부산 한국화의 맥을 잇는 중견작가 문대호의 개인전은 삶의 기억과 흔적을 수묵으로 담아내며, 자연과 인간, 사회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과거의 풍경이 오늘의 우리에게 조용히 말을 거는 단아한 미학을 보여준다.

20일(수)~9월 8일(월)
<장건울 개인전>

BNK부산은행 청년작가 미술대전 대상 수상자 장건울의 귀국 보고전은 교토 오히라 스튜디오 레지던시 결과를 바탕으로, 목가적 자연 속 교감과 성찰을 섬세하게 담아낸 신작들로 구성된다.



갤러리한스 신진작가 프로젝트

Up-and-Coming Artists 3

일 시 | 8월 16일(토)~9월 7일(일)
갤러리한스(기장군 일광읍 아천6길, 7)
문 의 | 051-784-0233

뜨거운 여름의 정점에서, 갤러리한스가 세 번째로 선보이는 신진작가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박소진, 박준우, 정지용, 정희진 네 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이번 전시는 참신하고 독창적인 시선, 에너지 가득한 색채와 형상, 기성의 틀을 벗어난 자유로운 표현으로 젊은 작가들의 예술 세계를 생생하게 마주하는 시간이 된다. 한 발 먼저 새로운 감각을 경험하고, 다가올 계절을 예술로 채워보자.

전지적 관객 시점 · 오늘도 공연장에 갑니다

감동과 열정이 빛난 무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21회 정기연주회 'DSCH'

글 이서영 해운대구 마린시티로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21회 정기연주회 DSCH는 감정과 에너지, 그리고 깊은 울림으로 가득한 무대였다. 첫 곡으로 연주된 생상스의 첼로협주곡 1번에서는 첼리스트 최하영이 짙은 몰입으로 무대를 압도했다. 붉은 드레스와 함께 첼로와 하나 된 듯한 연주는 우아하면서도 강렬했다.

이어진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0번은 말 그대로 숨조차 멈추게 하는 음악이었다. 복잡한 리듬과 폭발적인 다이내믹 속에서도 지휘자와 단원들은 밀도 높은 집중력을 유지하며, 작품의 긴장과 해방을 치밀하게 그려냈다. 마지막 지휘봉이 허공을 힘 있게 가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공연의 마지막은 부산시향 특유의 전통인 퇴임식으로 마무리되었다. '올드 랭 사인'의 선율이 울려 퍼질 때, 자연스레 영화 <애수>의 한 장면이 떠올랐고, 단원들과의 이별이 겹쳐 몽클함이 더해졌다. 혼신을 다한 연주에 따뜻한 작별이 더해지며, 관객 모두에게 진한 여운을 남긴 시간이었다.

기다림이 아닌 선택의 신데렐라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신데렐라: 너의 뜻대로>

글 장효선 해운대구 대천로

필자는 어릴 적 엄마가 읽어주는 신데렐라를 들으며 계모 때문에 처음으로 화가 났고, 매일 집안일을 혼자 도맡아 하는 게 무엇인지 겨우 내 방 청소 하나 제대로 못해서 혼나는 일상 속에서는 전혀 공감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아이 엄마가 되어 필자가 아이들에게 신데렐라 책을 읽어 주는 날이 왔을 때는, 마냥 기다리면 기회가 주어지고, 왕자를 만나 인생이 반전된다는 메시지는 주고 싶지 않았다.

동화 속 세상에서처럼 현실은 마냥 기다린다고 하늘에서 기회가 뚝 떨어져 주어지는 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모 뜻대로 되는 자식이 어디 있겠나? 발 끝이 보이지 않는 공주드레스를 입고 왕자를 기다리는 두 딸을 데리고 본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가족뮤지컬 '신데렐라: 너의 뜻대로'는 그런 의미에서 참 뜻깊



은 시간이었다. 배우들이 보여 준 신데렐라는 자기 인생에 적극적이었고, 결혼과 사랑을 통해 구원받기보다는 하고싶은 일을 스스로 발견하고 노력하는 여성이었다. 동화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번 공연처럼 새롭게 해석된 신데렐라가 우리시대에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며 이 공연을 추천한다.



한 무용인의 사색

장정윤 지음 / 맑은샘 / 1만 2,000원

무용수이자 철학자이며 창작자였던 장정윤 동아대 교수가 삶의 깊은 성찰과 예술적 탐구를 담아낸 사유의 기록이다. 무용이 단지 ‘움직임의 예술’이 아닌 ‘존재에 대한 물음’임을 일깨워주는 이 책은 총 8장으로 구성됐다. 무용작품의 탄생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끄는 3장의 한 대목이다. “무용은 어떤 형태로든 인생을 해석한다. 움직임이 불러일으키는 상상력 이상의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단순한 감각의 표현을 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 감정에 대한 선명한 해석일 수 있으며, 단순한 동작 배열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도 있다. 인생의 본질적 의미를 알기 위해 움직임 속으로 들어가려는 관찰자가 있다면, 그의 시선이나 언어는 그 동작의 본질을 해석하는 것이다.” 무용의 세계로 이끄는 글이다. 저자는 순수무용에서 출발하여 몸과 춤의 세계, 창작의 의미, 코로나19 이후의 예술적 전환, 노년기 무용인의 신체와 정신의 변화까지, 무용을 통해 삶을 체득해가는 여정을 깊이 있게 조명한다.



간찰, 붓길 따라 인연 따라

석한남 글 / 태학사 / 5만원

“저는 부모님 모시고 근근이 살고 있습니다만, 굶어 죽은 시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장차 살아남는 사람이 없게 생겼으니, 더 말씀드려 무엇 하겠습니까. 매일같이 밥상을 마주할 때마다, 목에 바늘이 걸린 것만 같습니다.” 1671년(현종 12) 2월 13일, 함경도관찰사 남구만이 집안 어른께 보낸 편지다. 조선 전역에서 100만 명 가까이 병과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은 경신대기근 당시, 함경도 백성의 참상을 고스란히 전한다. 이 책은 성종 때 성리학의 대가 정여창부터 고종 때 영의정 조두순까지, 조선시대 이름난 선비 유학자 142인의 간찰을 소개한다. 수록된 편지는 미술계의 컬렉터(쥘리프리마 이상준 회장이 소장한 유물로, 이번 출판을 통해 처음 공개된다. 저자이자 고문헌 연구가 석한남은 “간찰은 조선 선비의 정신세계와 생활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귀한 자료”라며, “조상들의 친필을 직접 엿볼 수 있는 기회”라고 의미를 밝혔다.



책의 계절

정지현 지음 / 버터박스 / 2만 800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엘 아테네오 그랜드 스피렌디드 서점’. 원래 1919년 탱크 쇼를 위해 지어진 1,050석 규모의 대극장이었다. 경기 침체로 철거 위기에 놓였으나, 출판 그룹 ‘일샤’가 극장을 임대해 일부만 개조하고 2000년부터 서점으로 운영 중이다. 이제는 지역민에게 역사를 간직한 자랑스러운 공간이다. 2019년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400여 권의 단행본을 디자인한 북 디자이너 정지현은 2013년부터 세계 곳곳의 서점, 도서관, 북 페스티벌을 방문하며 책이 있어 아름다운 공간과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그중 7개국 13개 도시의 기록을 엮은 것이 이 책이다. 암스테르담 중고 서점 거리, 베를린 국립도서관, 도쿄 북 페스티벌... 책이 주인공으로 빛나는 곳마다 정지현의 발길이 머물렀다. 책을 좋아하던 부산 출신의 어린 시절, 그의 첫 도서관은 초읍동 부산시립 시민 도서관이었다.



부산시향, 아시아 최초 ‘무직페스트 베를린·뮌헨 무지카 비바’ 동시 초청

(재)부산문화회관은 7월 7일(월) 오후 2시 부산문화회관 챔버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산시립교향악단(이하 ‘부산시향’)의 독일 순회공연(9월 23일, 25일) 초청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부산시향이 이번 공연을 통해 아시아권역 교향악단 최초로 무직페스트 베를린(Musikfest Berlin)·뮌헨 무지카 비바(BR musica viva) 두 메이저 음악 축제에 동시에 초청받은 사례로, 베를린필하모니 메인홀에서 폐막 공연을 연주하는 특별한 기회를 갖는다. 부산시향이 지난 1997년 미국 카네기홀 무대에 선 최초의 한국 교향악단으로 기록된 이후 28년 만에 또 하나의 분수령을 맞게 되었다.

부산시향은 그간 중국과 일본, 독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해외공연을 진행해 왔지만, 백 명에 가까운 단원 전원이 유럽의 메이저 페스티벌 무대에 오르는 것은 이번 독일 초청 공연을 통해 오랜만에 이루어진다.

기자간담회에서는 (재)부산문화회관 차재근 대표이사, 무직

페스트 베를린·뮌헨 무지카 비바 빈리히 호프 예술감독, 부산시향 홍석원 예술감독, 부산시향 임홍균 악장을 포함한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공연의 의미와 향후 비전을 밝혔다. 특히 이번 순회공연은 단순한 해외 무대 진출을 넘어, 부산시향이 세계적 예술 네트워크와 본격적으로 연결되는 첫 관문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베를린 폐막공연에서는 한국 작곡가 박영희의 ‘소리’,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와 메시앙의 ‘승천, 4개의 교향적 명상곡’,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제7번’ 등을 연주하고, 무지카 비바가 열리는 뮌헨에서도 역시 박영희 작곡가의 곡을 들려줘 한국 현대음악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다.

이번 독일 순회공연은 무직페스트 베를린과 뮌헨 무지카 비바, 부산광역시,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주독일한국문화원의 주최, 온아티스트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부산은행의 후원을 받아 진행된다.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총회 및 로비음악회 개최

(재)부산문화회관은 지난 7월 8일(화) 오후 6시, 대극장 1층 로비에서 '후원회 총회 및 후원회장 이·취임식'과 '로비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3대 도용복 회장과 새롭게 선출된 4대 장문호 회장을 비롯해, 100여 명의 후원회원과 그 가족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로비음악회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플루트 4중주와 현악 4중주의 아름다운 선율로 무대를 열었으며, 이어서 부산시립합창단이 이기선 예술감독의 지휘 아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 등 다채로운 곡들로 축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특히 마지막 무대에는 초청 성악가 바리톤 김동규 교수가 출연해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등 자신의 대표곡을 열창하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후원회장 이·취임식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산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해주시는 후원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2025 하계합창캠프 진행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수준 높은 연주를 위한 합창 실력 향상으로 하계 합창캠프를 오는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다.

이 기간 집중적인 연습을 통해 합창 기술을 향상시킬 계기를 마련하고 단원들의 소속감 고취와 선·후배 단원간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합창단의 중요한 소통과 협력의 능력을 배양한다.

특히 이번 하계캠프는 2025년 4월과 7월 입단한 신규 단원들의 기량향상 및 합창단 활동에 대한 적응을 돕고, 집중력 있는 환경 속에서 하반기에 있을 정기 및 외부 공연,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제 등 연주회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BSCC

P R O G R A M

(재)부산문화회관·부산시립예술단 2025 공연프로그램 안내

예매 방법

온라인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에서 24시간 예매 가능합니다.

전화예매 | 고객센터(Tel.051-607-6000)로 전화하시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매 가능합니다.

한국어 문의 | ARS 1번 **외국어 문의** | ARS 2번

티켓수령 | 관람 당일 공연장 로비 매표소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매 취소 및 변경

취소·변경 안내는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051-607-6000)로 예매 취소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매는 공연 전일 14시에 종료되며, 취소는 공연 전일 17시까지 가능합니다. 이후,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취소내역은 홈페이지의 '마이 페이지'에서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수료 티켓환불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공연 당일에는 취소, 변경,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구분	취소수수료	비고
공연 7일 전~2일 전까지	티켓 가격의 10% 공제 후 환불	예매 당일 취소 시,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단, 공연 당일 불가) ※ 예매/취소마감은 공연 전일 17시
공연 1일 전~취소마감 17시까지	티켓 가격의 20% 공제 후 환불	
취소마감 17시 이후부터 공연당일	취소 및 환불 불가	

※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매·문의 : 051)607-6000(ARS 1번)

2025. 7-12월

July - December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문화회관

부산 시민들을 위한 특별한 시리즈
**부산시향과 함께 걷다,
세계 클래식 음악 산책**

문화 | 중극장

전석 20,000원

프랑스 2025. 8. 28.(목) 7:30pm - 8. 29.(금) 11:00am | with 브랜든 최

영국 2025. 10. 30.(목) 7:30pm - 10. 31.(금) 11:00am | with 황세희

• 지휘, 해설 | 홍석원, 백승현 • 연주 | 부산시립교향악단

※ 7세 이상 관람



새로운 세상의 갈망, 민족의 혼을 되찾으려는 의지와 저항
뮤지컬 <독립군 아리랑>

문화 | 대극장 2025. 8. 17.(일) 3:0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7세 이상 관람



파멸의 빌미는 무엇인가

경남도립극단 교류공연 연극 <빌미>

문화 | 중극장 2025. 8. 23.(토) 3:0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연출 | 최원석

※ 14세 이상 관람



<맨텀싱어4>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유일무이한 카운터테너

**카운터테너 이동규 <바로크로그>
with 조운성&성민제&고익석**

문화 | 대극장 2025. 9. 5.(금) 7:3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7세 이상 관람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문 달린 동물원>

문화 | 중극장 2025. 9. 6.(토) 2:0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24개월 이상 관람



고마워, 내 이야기 들어줘서

연극 <빵아>

문화 | 중극장 2025. 11. 14.(금)-16.(일) 시간 미정

R석 60,000원 S석 40,000원

• 극작 | 김은성 • 연출 | 김태형

※ 14세 이상 관람



현대무용의 혁신 그 자체

**알렉산더 에크만의 <해머>
에테보리 오페라 댄스컴퍼니**

문화 | 대극장 2025. 11. 21.(금) 7:30pm, 22.(토) 3:00pm

VIP 100,000원 R석 80,000원 S석 60,000원 A석 40,000원

• 예술감독 | Katrín Hall • 안무 | Alexander Ekman

※ 14세 이상 관람



부산 시민들이 만드는 꿈의 무대

<2025 제야음악회>

문화 | 대극장 2025. 12. 31.(수) 7:3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 연주 | (재)부산문화회관 시민오케스트라

※ 7세 이상 관람



부산시민회관

주변부에 머물러 있는 몸에 관한 의식과 질문

국립현대무용단 <내가 물에서 본 것>

시민 | 대극장 2025. 8. 30.(토) 2:00pm

R석 6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

• 안무 | 김보라

※ 7세 이상 관람



송승환이 만든 첫 번째 대형 가족뮤지컬

뮤지컬 <정글북>

시민 | 대극장 2025. 9. 6.(토) 11:00am, 2:00pm, 4:30pm,

9. 7.(일) 11:00am, 2:00pm

R석 77,000원 S석 55,000원

※ 24개월 이상 관람

※ 아동 단독 입장은 11세(초등학교 4학년)부터 가능



젊은이들의 아름다운 선율, 부산의 미래를 울린다!

2025 대학 교향악축제

시민 | 대극장 2025. 11. 26.(수)-30.(일)

평일 7:30pm, 주말 5:00pm

전석 10,000원

• 출연 |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인제대학교

※ 7세 이상 관람



2024년 서울미래연극제 초연, 작품상·연출상·연기상 수상

연극 <오함마백씨행장 완판본>

시민 | 소극장 2025. 11. 28.(금) 7:30pm,

29.(토) 2:00pm

R석 40,000원 S석 20,000원

• 연출, 출연 | 오치운

※ 14세 이상 관람



놓칠 수 없는 겨울 발레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시민 | 대극장 2025. 12. 5.(금) 7:30pm,
6.(토) 2:00pm
VIP석 100,000원 R석 80,000원 S석 60,000원 A석 40,000원
※ 48개월 이상 관람



우리 크리스마스에 볼까요?
대니 구 윈터 콘서트 <HOME>

시민 | 대극장 2025. 12. 27.(토) 5:00pm
R석 80,000원 S석 60,000원 A석 40,000원
※ 7세 이상 관람



독일 초청 연주회 - 무직페스트 베를린 2025 폐막공연
Musikfest Berlin

베를린 2025. 9. 23.(화) 8:00pm
• 지휘 | 홍석원
• 피아노 | 벤 킴



독일 초청 연주회 - BR 무지카 비바
Musica Viva

원현 2025. 9. 25.(목) 8:00pm
• 지휘 | 홍석원
• 바이올린 | 정원영
• 비올라 | 닐스 뮌케마이어



부산시립합창단

제198회 정기연주회
광복80주년 기념음악회 <Song of Arirang>

문화 | 대극장 2025. 9. 18.(목) 7:30pm
• 지휘 | 이기선
• 합창 | 부산시립합창단, 대구시립합창단, 해운대소년소녀합창단
• 연주 | UKO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특별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특별연주회
합창으로 하나되는 부산 <제36회 부산합창제>

문화 | 대극장 2025. 10. 28.(화)-10. 30.(목) 7:00pm
• 지휘 | 이기선, 임희준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실내악 시리즈 III
중인II

문화 | 챔버홀 2025. 8. 12.(화) 7:30pm
• 튜바 | 임성빈
• 피아노 | 백진주



제199회 정기연주회
송년 칸타타

문화 | 대극장 2025. 12. 4.(목) 7:30pm
• 지휘 | 이기선
• 연주 | UKO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IV
소리, 승천

부산콘서트홀 2025. 9. 13.(토) 5:00pm
• 지휘 | 홍석원
• 피아노 | 벤 킴



부산시립무용단

제192회 정기공연
해외 안무가 프로젝트(가제)

문화 | 대극장 2025. 11. 7.(금) 7:30pm, 11. 8.(토) 3:00pm
• 연출 | 이정윤



독일 투어 프리뷰 콘서트
Musica Viva

낙동아트센터 2025. 9. 17.(수) 7:30pm
• 지휘 | 홍석원
• 바이올린 | 정원영
• 비올라 | 닐스 뮌케마이어



특별공연
홀로출중

문화 | 중극장 2025. 12. 5.(금) 7:30pm, 12. 6.(토) 3:00pm
• 예술감독 | 이정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광복 80주년 기념음악회
광복의 빛을 넘어

문화 | 대극장 2025. 8. 14.(목) 7:30pm



제231회 정기연주회
New Composition Series III
위대한 유산

문화 | 대극장 2025. 9. 30.(화) 7:30pm
• 지휘 | 이동훈



제232회 정기연주회
New Composition Series IV
부산 국악 작곡 콩쿠르

문화 | 중극장 2025. 10. 28.(화) 7:30pm
• 지휘 | 이동훈



특별연주회
제50회 청소년 협연의 밤
꿈과 감성이 있는 젊은 음악회

문화 | 중극장 2025. 11. 21.(금) 7:30pm



제233회 정기연주회
2025 송년음악회
부산-강릉 KTX 개통 기념 <이음> 국악 콘서트

문화 | 대극장 2025. 12. 18.(목) 7:30pm
• 지휘 | 이동훈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77회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5. 9. 16.(화)
• 지휘 | 백승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67회 정기연주회
평화의 노래 Song of Peace

문화 | 대극장 2025. 9. 13.(토) 5:00pm
• 지휘 | 천경필



특별연주회
제36회 부산청소년합창제

문화 | 대극장 2025. 10. 31.(금)-11. 1.(토) 5:00pm
• 출연 | 부산시내 중·고등학교 합창단 및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제168회 정기연주회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꿈꾸며

문화 | 대극장 2025. 12. 13.(토) 5:00pm
• 지휘 | 천경필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함께 합니다

(재) 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 멤버십

법인회원을 위한 비즈니스 멤버십은 문화 혜택과 더불어 회관의 홍보 채널을 제공합니다.

한 장의 카드로 혜택을 모으고, 문화를 즐기고, 기쁨을 나눕니다.

기업의 품격을 높여줄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비즈니스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주요
혜택****부담은 줄이고
문화는 풍성하게**공연과 전시(20~50%), 아카데미 수강(10%), 회관 주차장(50%)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최고의 혜택과
홍보를 한 번에**회관의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이용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월간 <예술의초대>, 회관 내 DID, 회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세요.**비즈니스
멤버십
등급별
혜택**

등급 (가입기간 1년)	루비 레드 (Ruby Red)	에메랄드 그린 (Emerald Green)	사파이어 블루 (Sapphire Blue)
연회비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공통혜택

공연 초대권 제공(등급별 상이) | 공연 및 전시 할인(20~50%)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 | 월간지 <예술의초대>
매월 발송 | 회원라운지 무료 이용(음료 및 다과 제공) | 주차요금 할인(50%) | 제휴업체 할인(사정상
변경, 조정될 수 있음) | 회원대상 초청 이벤트 실시(별도계획에 의함) | 법인회원 네임 플레이트 제작 및
비치(대극장 로비 벽면) | 법인회원 현판 제공(법인회원 기업 설치) | 초대권 제공(협의 공연) | 문화회관
주차장 정기이용 등록

등급별 추가 혜택

회관 홈페이지 배너 광고	3개월	2개월	1개월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 광고	1회	-	-
회관 내 DID 법인 홍보	2개월	1개월	-
회관 공식 SNS 홍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토리, 블로그)	3개월	2개월	1개월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 가입 기간(1년)
-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우송
- 공연정보(SMS) 제공(대관공연 제외)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50% 할인
- 정기회원 카드발급 우송(10일 이내)
- 선예매 서비스 제공(일부 공연 제외)
-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 10% 할인

*차량번호 등록 시 할인 적용(1대에 한하며, 신청 후 7일 이내 등록)

- 정기회원 전용 라운지 이용(대극장 3층/회원카드 제시 시/음료 등 제공/무료 및 일부공연 제외)
- 부산시내 외부 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차 측 협의에 한함)

A horizontal timeline with three hexagonal nodes labeled **VIP**, **SPECIAL**, and **MEMBER**.



연회비 3만원
초대권 2매
(부산시립예술단 가입단체 공연 2매)
할인매수 2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중
가입 단체 초대권 2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중
가입 단체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전하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
(전사)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 회원가입 취소 시 가입한 날로부터 5일 이내(입장권 구입 시 취소 불가)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부산시향과 함께 걷다, 세계 클래식 음악 산책

2025년 1월 23일(목) 오후 7:30, 24일(금) 오전 11:00 **종료**
3월 25일(화) 오후 7:30, 26일(수) 오전 11:00 **종료**
7월 24일(목) 오후 7:30, 25일(금) 오전 11:00 **종료**
8월 28일(목) 오후 7:30, 29일(금) 오전 11:00
10월 30일(목) 오후 7:30, 31일(금)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30매)

잠비나이×미역수염 콘서트 **종료**

2025년 3월 15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40매)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2025년 3월 15일(토) 오후 3:00 **종료**
5월 3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20매)

Sound of Busan: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 #2.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 **종료**

2025년 4월 4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Sound of Busan: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 #3. 부산네오폐하모닉오케스트라 **종료**

2025년 5월 29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관람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람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됩니다. 게재된 공연은 2025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국립현대무용단 코레오 커넥션 3

<압! 압! 압!> **종료**

2025년 6월 14일(토)-6월 15일(토)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40매)

관객참여형 감성치유 프로젝트

<당신은 지금 바바레따에 살고 있군요> **종료**

2025년 6월 27일(금) 오후 8:00, 28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20매)

가족뮤지컬 <수박수영장> **종료**

2025년 7월 5일(토) 오전 11:00,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20매)

어린이 해외공연축제 <글로브(Glob)> **종료**

2025년 7월 16일(수) 오전 11:00,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오후 7:30 40매)

2025 신진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및 경력개발 지원사업

<로미오와 줄리엣> **종료**

2025년 7월 17일(목)-18일(금) 오후 7:30,
19일(토) 오후 2:00,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40매)

어린이 해외공연축제 <루멘스(Lumens)> **종료**

2025년 7월 19일(토) 오전 11:00,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40매)

Sound of Busan: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

#4.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종료**

2025년 7월 25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경남도립극단 순회공연 연극 <빌미>

2025년 8월 23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40매)

국립현대무용단 <내가 물에서 본 것>

2025년 8월 30일(토)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40매)

카운터테너 이동규 <바로크로그>

with 조윤성&성민제 **종료**

9월 5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문 닫힌 동물원>

2025년 9월 6일(토)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20매)

알렉산더 에크만의 <해머>

예테보리 오페라 댄스컴퍼니 **종료**

2025년 11월 21일(금) 오후 7:30, 22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30매)

연극 <오함마백씨행장 완판본>

2025년 11월 28일(금) 오후 7:30, 29일(토)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30매)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종료**

2025년 12월 5일(금) 오후 7:30, 6일(토)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회차별 20매)

대니 구 윈터 콘서트 <HOME> **종료**

2025년 12월 27일(토)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20매)

2025 제야음악회

2025년 12월 31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 1인 1매에 한해 예약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회장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명예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명예회장 최수기
(주)휴넥트 회장



명예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 자문위원



권홍사
(주)반도건설



김창환
국제아트센터협동조합 이사장



김충석
(주)코팩스 회장



박정오
(주)삼정기업 회장



이근철
(주)삼정 이사장



이용흠
(주)일신설계 회장



이원우
한성테크(주) 회장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최삼섭
(주)대원플러스그룹 회장

* 부 회장



권정미
고신의료원
임상교수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박재복
지원건설(주)
회장



손명진
(전)바르게살기운동
부산광역시협의회 여성회장



임미정
(주)창창아이씨티
대표



조홍수
후소산기(주)
대표이사

김태진
류용주
손명찬
오권석

(주)플라시스템 대표이사
삼신교통(주) 회장
서원건설산업(주)
(주)성원 회장

임말섭
정문흠
정상배

(주)미성하이텍
(주)태영버스 회장
한국라이언기초건설(주) 회장

* 이사회원

강대일
강서룡
곽국민
권한상

웰딩시스템 대표
효승테크 대표이사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김성우
김암우
김현태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삼명무역 대표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기본 예우

-  후원회 전용 룸 이용
-  대극장 좌석 네이밍
-  예술의초대 소식지 발송
-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  회원패 증명
-  무료 주차 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회원별 예우

구분	가입비	연회비 (익년도부터)	법인/ 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가 데미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부회 장	500 이상	200	법인/ 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배우자 무료	본인· 배우자 무료	2개 좌석
이사 회원	300	1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5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1개 좌석

-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개인 및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 일부 공연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전시, 아카데미(1강좌에 한함)의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하며 내부 사정에 따라 예우사항 등은 조정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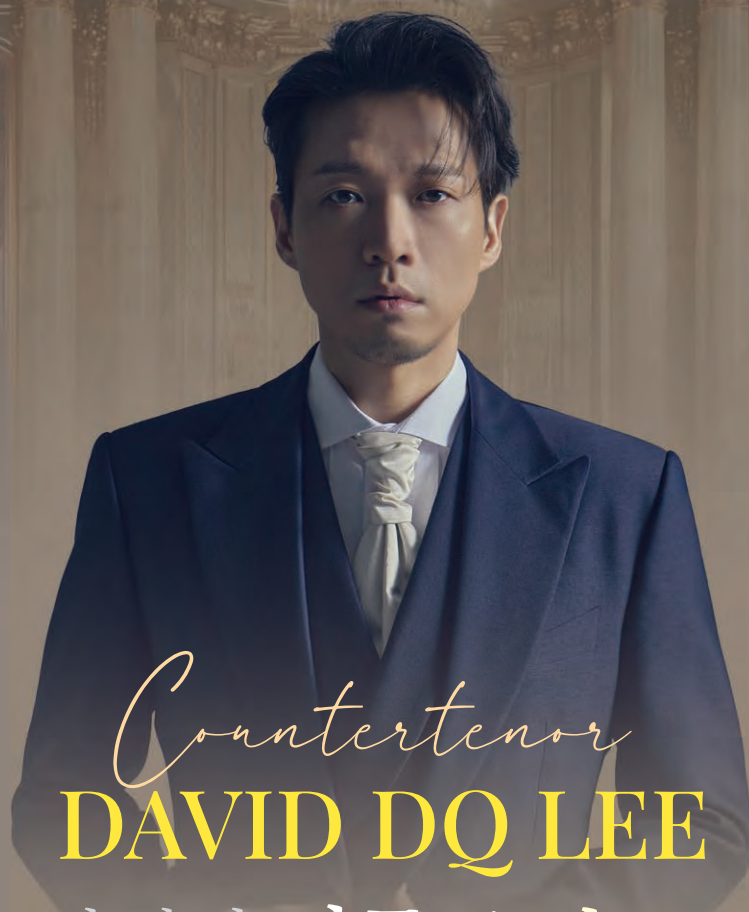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고객센터팀(607-6072)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김홍재 (주)식스데이 대표이사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신한춘 (주)금정화운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성규 김해주차장 대표
이수영 (주)유한 대표이사
이은석 (주)엘제이이엔에스 대표이사
이진영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임정덕 효원학술문화재단 이사장
장세비 우리은행 부산금융센터 및 부산영업 그룹장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조기종 조기종치과의원 원장
조종래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허정은 (주)제이세라믹 대표이사
황성환 부산제2항운병원 원장

※ 일반회원

강득용 (주)프리미엄 에셋 대표이사
계승균 부산대학교 교수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진홍 동우개발(주) 회장
김 철 온종합병원 산부인과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문민우 명인제약
박성복 대동병원 이사장
박성환 세종기획 이사
박흥근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성원기 삼강종합건설(주)
손혜경 손내과의원 원장
안금주 하나유치원 원장
안진우 경성대학교 교수
양은진 세무법인 인성
이경철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상수 통통샤인 정신건강의학과
이성임 엘가 대표
이수민 굿엔프랜드주식회사
이에리카정애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종원 명성피셔리 주식회사
이현숙 이현숙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임은자 (사)서부산경제발전연구원 원장
정명선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정민섭 (전)국회의장
정의화 숙편한내과 원장
조성락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하정태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한원우 허혜영

※ 회원명 가나다순



Countertenor
DAVID DQ LEE

카운터테너 이동규 바로크로그

Baroque'log

With



피아노 조윤성



더블베이스 성민제



기타 고의석



주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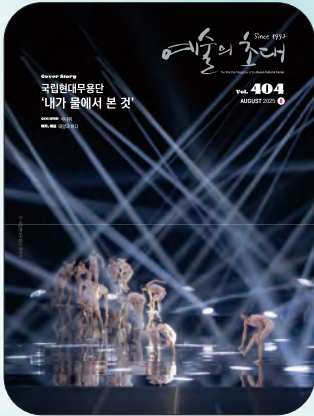
예매 www.bscc.or.kr / 607-6000(ARS 1 번)

티켓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7세 이상 관람 가능)

2025. 9. 5. FRI 7:30 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예술의초대>는 언제나 독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예술의초대>는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무료로 구독 가능합니다.

정기회원이 아닌 경우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을
비롯 금정문화회관, 영도문화예술회관, 을숙도문화회관,
해운대문화회관 등 구(區) 문화회관,
그리고 서면 영광도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술의초대>에 공연·전시·행사 일정을 게재하려면 **전월 15일까지**

관련 내용 및 사진(포스터)을 **E-mail(book2580@bscc.or.kr)**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단, 부산지역에서 열리는 공연·전시·행사에 한해 가능합니다.

<예술의초대>에서는 매월 유료 지면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유료광고 게재를 원하시면
고객지원팀(607-6071)으로 문의 바랍니다.

(재)부산문화회관 뉴스레터 낱말퍼즐과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 정보를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퍼즐풀기

- 참여기간 : 2025. 7. 28.(월)~8. 13.(수)
- 정답 및 당첨 발표 : 2025. 8. 22.(금)
- ※ 정답 및 당첨자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월간지 <예술의초대> 지면을 통해 발표됩니다.
- ※ 기프티콘은 기재하신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됩니다.

2025년 6월호 낱말퍼즐 당첨자 명단

010-****-9610	010-****-6701	010-****-1334
010-****-1371	010-****-6722	

COUPON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1588-2757

COUPON



공간 소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지하 242
(지하철 2호선 대연역사 내)
051) 611-8518

COUPON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예약방법 : 호텔 홈페이지 예약하기 ⇨
프로모션 코드입력 "CORMEM"
(<https://bwplusbusan.com/>)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해변로 97
051) 977-8888

COUPON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COUPON



공간 소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COUP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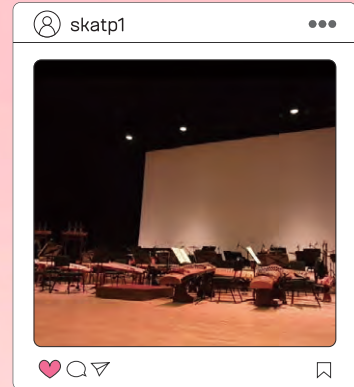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 홈페이지 예약으로만 진행되며
여행사 판매가의 5%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다녀왔습니다!

#방문 인증 당첨자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다녀왔습니다!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에서 공연, 전시, 아카데미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후기와 함께 SNS에 인증해주세요!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중 한 곳 이상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초대권 또는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SNS 채널을 팔로우하세요!



@bsculturalcenter_official



facebook.com/busanculturalcenter



@배시시TV



(재)부산문화회관

2025년 제36회 부산합창제 참가단체 모집

부산시립합창단에서는 합창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제36회 부산합창제에 참가할
부산지역내 합창단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부문 및 전형내용

- 행사명 : 합창으로 하나되는 부산 <제36회 부산합창제>
- 모집부문 : 부산지역을 연고로 한 20인 이상 합창단[혼성(시니어 포함)/남성/여성]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및 악보, 사진,
연습실황 or 공연 동영상(심사를 대비해 최근 3년 이내 연주한 4분 이내 동영상) 제출
※ 참가단체는 합창제 3일간 총 33팀(1일 11팀)이내로 제한
- 신청단체 중 소정의 심사를 거쳐 참가팀 최종 결정, 모집부문별 참가단체를 비례 조정함
※ 동일 지휘자 출연은 3일 1회로 제한, 연합합창에 단별 4명 이상 참석

행사일 2025년 10월 28일(화)~2025년 10월 30일(목) 19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공고기간 및 적격단체 발표, 예비모임 일정

- 공고기간 : 2025년 7월 14일(월)~2025년 8월 22일(금)
- 적격단체 발표 : 2025년 8월 29일(금) 17:00(예정),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 적격단체 선별은 참가신청서, 제출 영상 및 서류 구비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후 별도 공지
- 참가단체 예비모임 : 2025년 9월 4일(목) 14:00(예정), 부산시립합창단 연습실

신청서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5년 7월 28일(월)~2025년 8월 22일(금) 17:00까지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악보, 지휘자, 합창단, 반주자, 단장 사진 각 1장, 연습실황 or 공연 동영상 1개
(신청서는 hwp / 사진, 악보는 jpg 및 pdf / 동영상은 mp4 형식으로 제출)
※ 구비서류 미비 및 누락, 접수시간 이후 제출 시 심사에서 제외
- 접 수 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전자우편(bschorus3132@bscc.or.kr)만 접수가능
- 메 일 명 : [참가희망일] 단체명으로 접수
예) [10월 28일] 부산시립합창단

문의 부산시립합창단 담당자 051) 607-3132



2025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광복 80주년

뮤지컬
Musical

독립군 아리랑

의백(義伯)

2025. 8. 17. (일)

3:0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명불허전 왕의 귀환!
송승환이 만든 대형 가족뮤지컬



뮤지컬
정글북

2025.9.6-9.7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About Classic Group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문단히 동물원



The Carnival of the Animals



2025. 9. 6.(토) 14: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주관 어바웃 클래식 그룹

티켓 R석 5만원/S석 3만원/A석 2만원

예매 및 문의 (재)부산문화회관(051-607-6000, www.bscc.or.kr)

관람연령 24개월 이상



알렉산더 에크만의 '해머' 예테보리 오페라 댄스컴퍼니

GöteborgsOperans Danskompani
Hammer by Alexander Ekman

Artistic Director **Katrín Hall**

11. 21 Fri - 22 Sat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금) 19:30 (토) 15:00



Enjoy Your Time at LOTTE -Premium outlet DONG BUSAN



동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위치한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동부산점에서 구찌·버버리·몽클레르 등
약 500여개의 브랜드를 만날 수 있습니다.

폭넓은 쇼핑 경험을 통해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동부산점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보세요.

